

코스피 2746.63 (+0.81) / 코스닥 905.50 (-4.55)
 금리 3.322 (+0.029) / 환율 1347.20 (+1.00)

재계의 큰 별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 02



입항 악화에 차입금 의존 ↑ 'PF 보증' 대응여력 빨간불

건설사 신용등급 줄하향

수주 줄고 원가 부담 여전히 높아
 현금자산 소진, 차입금 증가 속도
 GS·신세계건설 등 신용등급 낮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이른바 '4월 위기설'이 여전한 가운데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호황기에 비축해 뒀던 체력은 불경기에 대부분 소진됐고, 신용등급을 불문하고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는 커졌다. 이미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PF 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대응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3월에 걸쳐 GS건설(A+/부정적 → A/안정적)과 신세계건설(A/부정적 → A-/안정적), 한신공영(BBB-/안정적 → BBB-/부정적), 대보건설(BB-/안정적 → BBB-/부정적) 등의 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한국기업평가역시 신세계건설의 등급을 하향하고, 한신공영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다.

한신평은 "올해 들어 등급전망이 '부정적'인 업체, 상대적으로 재무부담이 큰 BBB급 이하 건설사들의 신용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023년 결산 감사보고서 공시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정기평가 등을 통해 일부 A급 건설사를 중심으로 신용도 변화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신용등급·등급전망 하향 건설사(BBB-이상)〉

업체명	구분	2022.12	2023.12	2024.03
롯데건설	장기 단기	A+/부정적 A2+	A+/부정적 A2+	A+/부정적 A2+
GS건설	장기 단기	A+/안정적 A2+	A+/부정적 A2+	A/안정적 A2
HDC현대산업개발	장기 단기	A/부정적 -	A/부정적 -	A/부정적 -
신세계건설	장기 단기	A/안정적 A2	A/부정적 A2	A-/안정적 A2-
KCC건설	장기 단기	A-/안정적 A2	A-/안정적 A2-	A-/안정적 A2-
한신공영	장기 단기	BBB/부정적 A3	BBB-/안정적 -	(BBB-/부정적) -
대보건설	장기	BBB-/안정적	BBB-/안정적	BBB-/부정적

주1) 장기등급은 Issuer Rating 포함. Bold체는 해당 년도에 등급변동이 발생한 경우임
 2) 한신공영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2024년 2월 28일 만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증사채(AA/A/안정적) 등급만 존재

밝혔다. 건설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계 착공은 3만 4000호로 이전 10년간 평균 대비 33.6%나 급감했다. 특히 수도권은 경우 2월 누계 기준 착공이 1만 6000호로 10년 평균 대비 39.8%나 감소한 것은 물론 이미 건설경기가 위축된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12.3% 줄었다.

향후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인허가 역시 2월 누계 기준 4만 9000호로 전년 대비 10.4%, 10년 평균 대비 31.7%나 적은 수준이다.

반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월 6만 5000가구로 작년 11월 5만 8000가구, 12월 6만 2000가구, 올해 1월 6만 4000가구에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김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건설

수주액과 착공물량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사원가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사업환경은 지금보다 더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비우호적인 업황"이라고 판단했다.

신용등급 AA급 건설사들의 순채권 규모는 작년 3분기 2조 9000억원까지 축소됐다. A급 건설사들의 순차입금 규모는 작년에만 2조 6000억원 증가했다. 자기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BBB급 건설사도 1조 2000억원의 순차입금이 늘었다.

특히 차입금의 대부분은 기업어음이나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차입 위주로 진행됐다. 2021년 38.9% 수준이었던 20개사의 평균 단기차입 비중은 작년 3분기 53.8%까지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제22대 총선 선거공보물 발송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열을 앞둔 31일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우편함에 주민이 우편함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꺼내고 있다. 〈관련기사 4·6·8면〉 /뉴스

OSI, 7개분과 표준지침 9종 개발 韓, 장기모사체 글로벌 리드 박차

오가노이드가 여는 미래

표준화 경쟁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 전무
 정부 주도 표준화 작업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만큼이나 '오가노이드 표준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오가노이드 표준화라는 것은 육안으로는 판별하기 힘든 다이아몬드를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슷하게 오가노이드가 얼마나 실제 장기와 가까운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전무한 만큼, 글로벌 표준화를 먼저 이루는 국가가 오가노이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크다. 한국도 지난해 정부 주도로 학계, 연구계,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오가노이드 표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한국, 표준화 기선 잡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OSI)는 OSI는 간·장·심장·심장·폐·뇌·피부 등 7개 분과에서 장기별 오가노이드 실용화를 위한 품질 평

가 항목 등의 표준 지침(안) 9종을 개발했다. 6개월만의 성과다.

지난해 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균관대학교 주도로 학계, 연구계,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OSI)'가 세워졌다. OSI는 간·장·심장·심장·폐·뇌·피부 등 7개 분과에서 장기별 오가노이드 실용화를 위한 품질 평가 항목 등의 표준 지침안과 공통 표준 지침을 2개를 세계 처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간(肝)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산업용 화학물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고, 이를 테스트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공인 시험법에 등재하는 것을 첫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세부 논문(Detailed Review Paper-DRP)의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 2월 2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OECD 인사가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표준화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덩치 커진 인뱅... 대환대출에 이자익 60% ↑

인터넷은행 이자이익 3조 533억
 카뱅 58% 토뱅 155% 케이뱅 17% ↑

대환대출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은행의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은행의 이자이익은 3조원으로 지방은행 이자이익의 50%를 넘었다. 공고했던 은행권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

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이자이익은 3조 533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연간 이자이익은 2조 481억원으로 전년(1조 2939억원) 대비 58% 늘었다. 토스뱅크는 5548억원으로 전년 대비 3374억원(155%), 케이뱅크는 4504억원으로 652억원(17%) 증가했다.

◆대환대출서비스에 인뱅으로 몰려
 인터넷은행의 이자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확대되며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탄 고객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더 낮은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를 마련했다. 지난해 서비스를 통해 대환대출한 금액은 3조 3851억원으로 총 14만 4320명의 차주가 이용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잔액은 4분기 기준 16조 4000억원으로 1년 전(14조 5000억원)과 비교해 2조원가량 늘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l15@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원희룡,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아빠 찬스 논란 "도저히 용납 어려워"
 ▲ 인요한 "정부 잘한 거 아냐... 잘못 인정하고 방향 바꿀 용기 있다" (사진 뉴스)

▲ 공식선거운동 첫 휴일, 충북 후보들 표심잡기 후끈
 ▲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 27%·한동훈 20%... 조국 3위



▲ 국힘 장영하 후보 "민주당 지지자, 야당과 한 세력"
 ▲ 민주당 박용진 "국힘 후보 공보물에 사진 도용... 분노 치밀어" (사진 뉴스)

한·미 FTA '일등공신'... 효성 50년, 글로벌 수출기업 키워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누구인가

중국·베트남·인도 등 현지 공장 만들어
1990년대 후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010년 이후 스판텍스섬유 세계1위 위상

“경제가 어려울 수록 기업은 국민의 믿음직한 버팀목이 되어 합니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09년 한국 경제인협회 신년사를 통해 전했던 말이다. 조 명예회장은 50년 넘게 효성을 일구며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키운 주역이다. 지난 29일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업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 기술 중시 해안으로 효성 이끌어

조 명예회장은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하고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원에서 화학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1966년 효성의 모태인 동양나이론 울산공장 건설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경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동양나이론 울산공장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스판텍스, 타이어코드, 전력기기 등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현지에 생산 공장을 만들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효성은 2000년 이후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2010년 이후 스판텍스 섬유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며 세계1위 위상을 유지해왔다.

◆ 재계에도 중추적 역할 맡아...국제관계에 '능통'

조 명예회장은 한국의 재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한·미 FTA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하며, 민간 외교부문에서 한·미 FTA 체결에도 큰 공헌을 했다.

아울러 조 명예회장은 한미재계협회장, 한일경제인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 경제외교 활성화를 견인했고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지난 1990년 2월 HICO 창원공장을 순시하던 당시의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지난 2005년 4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 재계 대표로 (왼쪽)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던 당시의 모습. /효성그룹

“항상 긍정적이고 좋으신 분... 기업 대표 재계 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정·재계 조문 행렬 상주 조현준 회장, 부인 이미경 씨 빈소 지켜

지난 29일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지난 30일부터 시작된 조문은 이틀째 이어졌다.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원 명의로 된 조화가 놓였다. 상주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빈소에서 부인 이미경 씨와 함께 숙부와 사촌동생을 맞았다.

조양래 한국엔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은 아들 조현범 회장과 함께 지난 30일 장례식장을 찾았다. 조현범 회장은 “아버지(조양래 명예회장)가 막바지에 (고인을) 못 봐서 매우 슬퍼했고 아쉬워했다”며 “(고인이) 막바지에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많이 고생을 하셔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다”고 추모의 말을 전했다.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던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도 모습을 드러냈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과 어머니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왼쪽)과 조양래 한국엔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한때 효성 경영에 참여했으나 부친·형제들과 마찰을 빚다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회사를 떠난 바 있다. 이후 2014년 형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하기도 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가족들과의 추억 등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며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모친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함께 빈소를 조문했다. 이 회장은 범효성가인 조양래 명예회장과 조현범 회장을 제외하고는 재계 오너 일가 중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그는 고인과의 관계 등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고인을 추모하는 이들의 발길은 이틀째(31일) 계속됐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31일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정

이사는 조 명예회장에 대해 “항상 긍정적이고 좋으신 분”이라며 “기업을 대표하는 재계 원로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예전부터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라며 “(상주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도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라 꼭 인사드리려고 싶었다고”고 전했다.

이날 빈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장재현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방문했다. 조 명예회장이 효성그룹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 만큼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4월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4월 2일 오전 8시 열린다. /차현정 기자

부 고

조석래(趙錫來) 효성그룹 명예회장께서
2024년 3월 29일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장례는 고인의 업적과 유지를 기리기 위해 회사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화 및 부의는 정중히 사양하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빈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1
- 발 인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7시
- 연락처 : 02-2227-7550
- 장 지 : 경기도 선영

효성그룹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0일 아버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이 31일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방문했다. /공동취재단

은행권 자율배상 절차 돌입... 평균 배상률 40%, 2조 전망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

7개 은행, 금감원 조정안 수용
투자자 "전액 보상"... 불만 고조
대규모 소송전 확산 가능성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 매한 7개 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하면서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평균 배상률은 40%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액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분쟁조정과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ELS 배상과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와 설명 등이 충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판매 유형에 따라 배상률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H지수



홍콩ELS피해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ELS를 판매한 7개(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 모두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기본배상 비율은 23~50%지만, 투자자·판매사별 책임에 따라 0~100%를 차등 배상한다. 금융취약층을 대상으로 판매사의 불안전판매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최대

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선 자율배상이 평균 40% 안팎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부실(대면판매) 10%포인트(p)를 더한 값이다. 이들 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중 올해 1~7월 만기를 맞는 액수는 약 10조 원이다. 이 중 절반은 손실이 났다고 가

정하고 배상비율 40%를 대입하면 은행권 총 배상액은 2조원이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배상 방식 비율에 불만이 크다.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당시에서는 100% 배상을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평균 배상률이 40%선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100% 배상을 결정했고, 지난 2021년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면서 투자금 전액을 보상 받았다.

홍콩ELS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액에 대한 일괄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김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은행에서는 고위험 고난이도 상품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고객에게 판매

해 놓고 이제 와서 고객의 자기책임만 내세우고 있다"며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안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 책임이 50%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만족스러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약속했던 금감원이 은행 감싸기에 급급했기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배상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자율배상을 수용했지만 투자자들의 수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은행의 배상 비율에 만족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 판매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일부 불안전판매가 확실한 경우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판매였다면 배상비율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떠오르는 한강벨트...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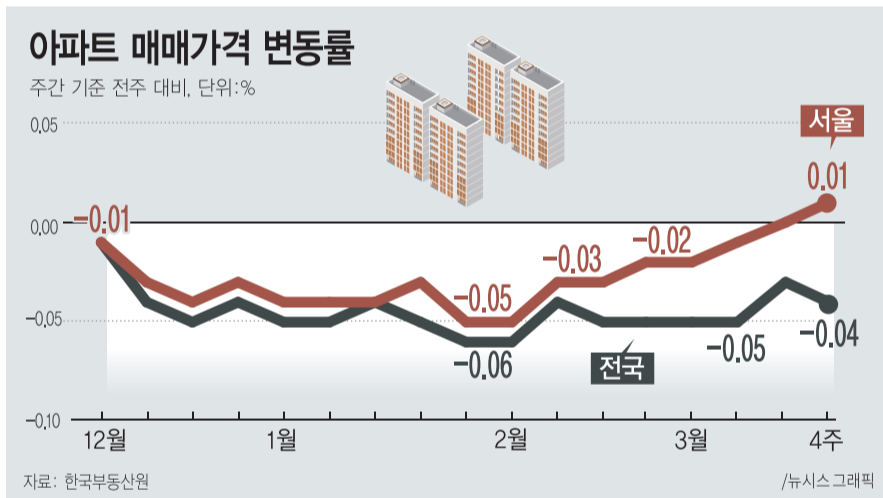
매매수급지수 87.5... 7주 연속 상승
"급매 위주 거래, 수요부족 의견 주중"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7주 만에 상승 전환하며 주택 시장에 온기가 되는 모습이다.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7주 연속 상승하며 살아나는 분위기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0%) 대비 0.0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17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마포구(0.00%→0.12%)가 아현·대흥동, 광진구(0.00%→0.04%)는 구의동 주요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으로 전환됐다. 도봉구(-0.04%→-0.04%)는 쌍문·방학동 구축, 서대문구(0.02%→-0.03%)는 남가좌·북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04%→0.



05%)가 잠실·가락·방이동 주요단지, 동작구(0.05%→0.04%)는 동작·사당·상도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강동구(0.02%→-0.02%)는 강일·암사동, 관악구(-0.05%→-0.03%)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거래희망가격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 관망세 이어지고 지역·단지별로 상승·하락이 혼재

돼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급매 소진 후 매수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래미안파크스위트'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1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달 매매가격(11억1000만원) 대비

7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레이크팰리스'의 경우 전용면적 116㎡가 24억3000만원에서 25억3000만원으로 1개월 만에 1억원 올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주 연속 상승했다.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으로 전주(86.6)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매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 위주로만 거래되고 있다"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던 매매가격은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물건을 쌓여있는 가운데 수요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종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1면 '덩치커진 인뱅...서 계속

저금리·편의성 주요 지방은행 추월 전망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자금대출이 자리잡은 영향도 컸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담대를 출시한 이후 부동산 심리가 회복되며 지난해 말 주담대 잔액이 9조1000억원으로 뛰었다. 전년 동기(1조2000억원)와 비교해 8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케이뱅크도 주담대와 전월세보증금 대출 비중이 2022년말 20%에서 2023년말 40%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아직 주담대를 출시하지 않은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자금대출을 출시하며 이자이익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토스뱅크의 전월세자금대출잔액은 출시 3개월만에 4060억원이 늘었다.

◆인뱅·지방은행 금리경쟁 치열

업계 안팎에서는 인터넷 은행이 지방은행의 이자이익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환대출 서비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담대, 전월세자금대출로 확대됐는데, 시간을 두고 금리가 낮고 플랫폼 이용이 편리한 인터넷은행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DGB대구은행이 연 3.61%로 가장 낮았고, 카카오뱅크가 연 3.71%로 뒤를 이었다. BNK경남은행과 케이뱅크도 각각 연 3.80%, 연 3.81%를 기록해 금리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인터넷은행의 금리가 독보적으로 낮다. 케이뱅크가 연 3.62%로 가장 낮았고, 토스뱅크 연 3.70%, 카카오뱅크 연 3.71%를 기록했다. 지방은행의 평균금리가 연 4.25%인 것과 비교해 최대 0.63%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시작하고, 모바일 앱 접근성 또한 높아 대환대출 실행 가능 시기를 두고 갈아타는 차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나유리 기자 yu115@

"표준화, 국제인증으로 이어져... 경제적 잠재력 큰 분야"

>> 1면 '표준화 경쟁...서 계속

FDA와 첨단 동물대체시험 연구·규제 기관(NIEHS)의 시험법 개발 현황 소개와, 국내 동물대체시험 규제 적용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식약처와 함께 OSI를 이끌고 있는 안전성·성균관대 생명물리학과 교수는 "팬데믹 때도 전 세계가 한국의 진단키트를 쓰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활용하는 등 한국의 팬데믹 대응 기법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며 "한국이 오가노이드 제작·품질 평가를 위한 표준을 리드한다면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화는 결국 국제 인증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 모든 오가노이드는 물론 오가노이드 개발을 위한 장비, 시약 등의 모든 제품에 KS마크, CE 인증과 같은 '한국이 만든 국제 인증'이 붙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측면에도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덧붙였다.

◆오가노이드 기준, 첫 ISO 등재 기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역시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손미영 생명연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이 주축이 돼 만든 '유전자 패널 기반 오가노이드 유사도 평가 시스템'은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

가노이드가 실제 장기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세계 첫 시도다.

생명연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유전체 분석(RNA 시퀀싱)이라는 기법을 활용한다. 특정 장기가 가지는 특이한 유전자 세트(Gene set)를 골라내 중요도와 기능성을 중심으로 그 유전자 세트가 얼마나 발현돼 있는지 알고리즘을 짠다. 이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하면 실제 인체 장기와 오가노이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모든 장기에 적용할 수 있다.

손 박사는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생명연이 개발한 장(腸) 오가노이드의 유

사도가 75%, 미국팀이 개발한 장 오가노이드는 45%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 표준화 절차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명연 손명진 박사는 O ECD 정기회의에서 '오가노이드 기반 간독성평가 시험법'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 때까지 국내 개발 OECD 시험 가이드라인은 총 3건이 채택됐지만 모두 기존 국제 시험법이 존재하는 미투(me too) 시험법이었다. 오가노이드 기반 간독성평가 시험법은 기존 시험법이 없이 신규로 제안하는 최초 가이드라인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반도체로 시작해 반도체로 끝... 주민들 “경기부터 살려야”



경기 용인갑은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반도체 벨트'의 핵심 요충지다. 사진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월 28일 용인갑 지역구에 걸린 세 후보 현수막의 모습. /서예진 기자

총선 유세현장 가보니

경기 용인갑

이상식vs이원모vs양향자 ‘3과전’ 세 후보, 반도체 관련 공약 내세워 조기착공·특성화 대학 설립 제시 주민 “손님도 없는데 같은 얘기 뿐”

경기 용인갑은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반도체 벨트’의 핵심 요충지다. 용인 처인구 전반을 아우르는 해당 선거구는 용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가 3과전을 펼친다. 반도체 산단이 들어올 용인갑에서 세 후보 모두 이를 차질없이 진행해 처인구의 발전을

이뤄낼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월 28일 경기 용인 처인구 일대를 찾았다. 비가 내려 날은 추웠지만, 선거 운동 열기는 뜨거웠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인근 지역구인이 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이상식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구시가지 근처인 명지대입구 사거리에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이라, 흐린 날씨에도 인근을 지나는 유권자들은 유세에 눈길을 돌렸다. 하교하는 학생들도 신호를 기다리며 탄희 의원의 연설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연설을 통해 “민생이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너무 힘들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며 “처인을 살리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상식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는 오전부터 부지런히 지역을 돌았다. 이 후보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바쁘게 모현읍으로 이동해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후보를 본 일부 유권자들은 “아이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왔어?”라며 친근하게 웃어주기도 했다.

개혁신당 양향자 후보는 ‘삼성반도체 30년, 진짜 용인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다. 양 후보는 이날 오전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용인중앙시장 근처 대로에서 유세차에 올라 40분간 연설을 했다. 반도체 전문가로서 ‘K-칩스법’을 발의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설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세 후보는 모두 시스템 반도체 산단 조성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다. 이상식 후보는 국립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설립을 약속했고, 이원모·양향자 후보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착공·완공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어려운 경기로 인해 시름이 깊었다. 늦은 오후용

인중앙시장은 방문객이 적었다. 한 택시기사는 “유세차 소리 듣기 싫어서”라며 차를 돌려다른 길로 이동하기도 했다. 용인 중앙시장의 한 상인도 “유세차에서도 반도체 얘기만 들려오는데 무슨 소용이나. 손님도 없는데”하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편 보수정당은 도농복합지역인 용인갑에서 농촌 표심을 바탕으로 19~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자를 배출했다.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도권에서 참패했을 때도 정찬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는 7.2%포인트로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정치 지형은 꾸준히 변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로 도심이 확대되는 사이, 농촌 지역도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됐으니 말이다. 용인의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이동·남사읍에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말도 옛말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 상으로도 여야 후보 간 차이가 드러나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8일 경기 용인갑에 거주하는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지난 29일 발표)한 결과, 이상식 민주당 후보 45%,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 36%,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 3%, 무소속 우제창 후보 2%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무선 100%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대해 이상식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에) 취하지 않고 3% 진다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하겠다”고 했고, 이원모 후보 측은 “선거가 시작되면 지역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함평군 공고 제2024-384호

함평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월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함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

함 평 군 수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901	6	국지 도로	624	월야면 월야리 중로 3-901	월야면 월야리 소로 2-901	일반도로	-	전남고시 제2002-163호 (2002.8.5.)	-

나. 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소로 3-901	소로 3-901	· 도로 폐지 (B=6m, L=624m)	· 장기미집행시설로 지방재정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사실임으로 폐지하고자 함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4. 4. 1. ~ 4. 19. (공휴일 제외,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함평군청 지역개발과

다. 열람도서 : 함평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안)

3. 관계도서 및 도면 : “계재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지역개발과(☎061-320-1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모 “각 부처와 처인구 발전 이끌 것”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

“힘·실천력 있는 여당 후보” 강조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속히 조성

4·10 총선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후보(44)는 “대통령, 용인시장, 각 부처와 한 팀이 돼 처인구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실천력이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8일 이 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동행인터뷰에서 “체 강점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용인 처인구의 현안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이 사퇴하자 그를 돕기 위해 14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법률지원팀에 합류했다. 이 후보는 “퇴직 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법과 절차가 무너진 우리의 현실을 절감하게 했다”고 정계 입문 계기를 설명했다.

경기 용인 처인구는 지역구의 면적이

용인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곳이고, 도농복합지역이다. 산지와 저수지 등이 많은 이유로 관내 발전도 더디다는 불만이 많다. 이 후보는 처인구의 발전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처인구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다. 특히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의 성공이 용인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특별위원회 구성, 지역·지자체 간 유기적지원, 세제·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하겠다. 이와 함께 세계적 반도체기업 및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단 중요한 것은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이다. 그것이 지역발전의 하나의 거름이 될 것”이라면 “처인구 주민들의 실생활에 외닿는 중요한 것은 경강선 연장 등 처인구의 철도시대를 여는 것이다. 스타필드 같은 복합문화시설 또한 유치해야 경제가 그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목표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빌드업은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디지털과 리사이클링이 결합된 친환경 기술
시로 더 가까워진 에너지 트랜지션까지

**SK의 솔루션으로, SK의 팀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민주당 “전반개혁 약속” vs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권 폐지”

4·10 총선 공약 비교

1 정치분야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과 국가 발전을 위한 약속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4·10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각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안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양 정당의 주요 분야 공약을 정치·경제·저출생·사회·외교·안보·기후환경 등의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치분야에 대한 개혁은 정당정치의 근간이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다. 정치 개혁을 통해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 개혁은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요 정당에서도 정치 개혁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개헌’ 약속… 與 ‘불체포특권 폐지’ vs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

31일 양 정당의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개혁 공약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았다. 이런 가운데 양 정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정치분야 공약은 바로 개헌과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정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 정당 모두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을 폐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고민정(광진을), 이정현(광진갑)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野 국회의원 대한 성과급·벌금제 구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

與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양당 모두 개헌·무임금 무노동 공약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국회의원은 헌법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면책특권은 제45조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광범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5·18 정신 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광장에서 윤용근 중원구, 김은혜 분당구를 장영하 수정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법 전문 수록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알권리 등 명문화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위헌적 헌법조항 삭제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외요구권(거부권) 및 사면권 헌법적 한계 명문화 ▲감사원의 국회 소속 변경 ▲헌법 재판관 구성 다양화 ▲헌법재판관의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및 국회에서 6인 선출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재판기간을 포함해 세비 전액을 반납하고,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에 무단 불참하면 결석일수 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국회법이 정한 회의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속 등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 삭감하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집중 vs 민주당, 국회·법원·공무원 등 전반 개혁 약속

양 정당의 정치개혁 공약의 차이는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정치’ 종식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폐지 ▲금고형 이상 판결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 삭감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근절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한 위원은 ‘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와 ‘국회의사당 전체 세종 이전’을 별도로 발표했다.

다만 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는 정당에게 주는 것이고, 저런 내용의 법안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 있다”며 “(한 위원장이) 일단 공부를 안 했거나, 그냥 저를 공격하려고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공약을 내세운 취지에 대해 “해묵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실시하지는 취지”라며 “돈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특

권층’으로 인식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특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국회의원에 대한 성과급제나 징계 시 벌금제 등을 도입하지는 입장이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법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관 정원을 증원하고, 국선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 ▲공직자의 부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 도입으로 기관장 검증 강화 등을 공약집에 담았고,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한 재정을 목표로 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국회 예산안 기능 강화 ▲예산 및 결산심의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국가재정운영계획 국회 심의 강화 등도 민주당의 공약이다.

민주당 공약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민영화 방지’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구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 국회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의무화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외에도 청년의 국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비중을 낮추겠다고 했다. 현행 전액 보전 기준은 유효투표수의 15%인데 5%로 낮추고, 반액보전은 10~15%에서 3%로 하향 조정한다. 기탁금 반환 득표율도 함께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서연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내년 다섯살부터 무상교육 실시” 이재명 “與 악어의 눈물에 속아선 안 돼”

‘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0~12세 국가책임교육 돌봄 완성 목표 유아학비·보육료 대폭 인상 지원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다섯살부터 실시해 3세·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부모님들의 보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국가책임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책임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

한다.

또,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영유아 보육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 7000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 2000원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달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체능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미취학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예: 사립학교)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위원장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어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입시와 거리가 있는 예체능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국민 공약에는 지난 1월 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에 담긴 돌봄 개선책을 포함해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중·고등 및 급식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의 퇴근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실시해 취약자녀 학부모 비용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가 방학 때마다 하던 아이의 기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방학 중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아이 한 명 한 명이 도서산간, 중소도시, 대도시 어디에 살든, 어떤 기관에 다니든, 비용 부담 없이 질 높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선생님을 통해 바르게 자라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지역구 인천 계양을 사수 나서 부활절 맞아 교회·성당 찾아

4·10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주요 격전지를 순회하며 재판 일정을 소화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사수에 나섰다.

이 대표는 31일 부활절을 맞아 인천 계양구 가나안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린 뒤 서운동성당 부활절 미사에 참석하며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앞서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물이 소생하며 다시 살아남을 누리는 부활의 계절”이라며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부활시켜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활절 예배에서는 계양을에서 맞붙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도 같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음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으며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음소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침묵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다 엄살”이라며 “예언

하나 하자면 이 사람들이 분명 단적으로 몰려나와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면 서로 배운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 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국민을 속여왔고,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나쁜 짓은 없다. 속아서는 안 된다”며 “정말로 다급한 건 우리다.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국회 1당이 되는 순간이 오면 이 나라는 견잡을 수가 없게 돼 심판은 커녕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 지역구에 머무르며 ‘안방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표가 지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출마한 서울 서초을을 시작으로 동작을(류성영), 용산(강태웅), 강동갑(진선미), 강동을(이해식), 중랑갑(서영교), 경기 남양주를(김병주)을 돌며 격전지 공략 지원에 나섰다.

/박정익·안승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축구도 하나

은행도 하나

카드도 하나



하나 **뿐인**
내 편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尹 대통령,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인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 소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시스

전국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쇼크'

40대 유튜버, 40곳에 몰카 설치 野 "음모론으로 투표 불신 조장" 선관위 "불법행위 강력 대응"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사전투표가 4월 5~6일 열리는 가운데, 40대 유튜버가 전국 각지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잠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1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버 A씨의 범행장소를 인천과 경남 양산 등 15곳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전투표소 등에 잠입해 설치한 카메라의 상단수를 특정 통신사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인 충전 어댑터 형태로 설치해 통신 장비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다. A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상을 올렸고, 지난 2022년 대선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지난 3월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민주당은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해당 유튜버가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흥기가 같이 아니라 종이'라는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게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선관위가 투표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다수 올렸다고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저급한 음모론으로 얼룩지게 만드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음모론으로 투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사전투표 열기를 막으려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중대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범행 동기와 가담자 등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배후 유무 등을 낱알이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선관위는 투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없도록 투표장내 불법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영덕 더불어민주당연합 대표 등은 지난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해당 사건의 조사상황을 듣고 확실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전국 모든 투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등에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런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유권자 4428만명... '경기도·60세' 최다

4·10 총선

21대 비해 28만5764명 증가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0 총선 유권자가 총 4428만11명으로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연령별 유권자는 60세 이상이 약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국내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4425만1919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만8092명을 합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선 유권자 수는 제21대 총선 당시 4399만4247명보다 28만5764명이 증가했다.

국내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2191만8685명(49.53%), 여성은 2233만3234명(50.47%)으로 여성 유권자가 41만454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769만5466명(17.39%)과 70세 이상 641만4587명(14.49%)으로, 60세 이상이 1411만53명(31.88%)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

어 50대 871만1608명(19.69%), 40대 785만7539명(17.76%), 30대 655만9220명(14.82%), 20대 611만8407명(13.83%), 10대(18~19세) 89만5092명(2.0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1159만1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서울시가 830만840명, 부산시가 288만2847명 순이었으며 세종시는 30만126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는 총 45개다. 기초단체장 선거인 수는 28만7088명, 광역의원 선거인 수는 84만6643명, 기초의원 선거인 수는 112만3151명이다.

국내 선거인명부는 3월 19일 현재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3월 2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거대 정당, 불공정 공천 즉각 취소해야"

새로운미래 기자회견

박은정 등 '불공정 4인방' 규정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을 앞두고 편법대출과 전관예우, 성범죄 변호, 아빠찬스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조국혁신당 후보들을 '불공정 4인방'으로 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보들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새미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사진)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관비리'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사기대출' 양문석 민주당 후보 및 '아빠찬스' 공영운 민주당·이용호 국민의힘 후보를 명백한 '불공정 4인방'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먼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이



력'을 문제삼았다. 오 위원장은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41억이라는 수입료를 챙긴 것은 안대희, 황교안 등 전 총리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에 비추어 봐도 역대급 금액"고 지적했다.

또, 편법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향해서는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강북을 지역성범죄자 변론 이력의 민주당 후보를 비난하며 했던 말을 잊었냐"라며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의 조수연(대전 서갑)·구자룡(서울 양천구갑)·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김상욱(울산 남갑)·이현웅(인천 부평을) 후보를 일일이 거론했다.

/박정익 기자

'양문석리스크' 재점화... 11억 편법대출 의혹

(안산갑 예비후보)

양 후보 "은행측 '업계의 관행' 설명" & "가짜서류로 못 받아갈 대출 받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과 비이재명계를 향한 말폭탄으로 당 안팎의 사퇴 요구가 나왔던 양문석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이번에는 자녀 편법대출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수도권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슈가 총선을 10일 남기고 터졌음에도 양 후보는 총선을 완주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 명의로 31억2000만원에 구입한 후, 2021년 4월 대학생 신분인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진 빚 7억5000만원을 갚았다.

양 후보의 장녀는 고정적인 수입 없이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 삼아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도마에 올랐고 편법 혹은 불법 대출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양 후보의 장녀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후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 후보의 장녀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에선 "속물이고 썩거루족인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고 쓴 글도 발견돼 논란이 커졌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4월1일부터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현장감사에 착수해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 3월30일 입장문을 내고 편법대출 행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대출 사기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 금액의 이자율이 너무 높아 다른 대출 같아타려고 알아보니, 대구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의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을 것을 권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업계의 관행'이라고 설명했음을 강조하면서 장녀의 대출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며 "사기대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이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통장잔고위조를 통한 대출이 전형적인 사기대출"이라고 반박했다.

'양문석리스크'가 재점화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한 지원유세에서 "제가 아침뉴스를 보다 황당한 걸 봤다. 양문석이란 분 계신다. 그분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자금을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이어 "(양 후보가 대출한 자금은) 사업자금이었다. 사업자들, 상공인들이 써야 할 돈이다. 그게 다 걸렸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기가 아니다"며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이분이 자기의 행동을 사기대출이라고 한 사람도 고소하겠다고 했다. 제가 분명히 말한다. 저를 먼저 고소하라"며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등기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분이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상의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며 "짜고 하면 죄명만 바뀐다. 짜고 하면 배임이라 죄명만 바뀔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다 사기라고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안전 귀국맨 10% 환급’... 편의성 강화 여행자보험 인기

보험업계, 여행객 맞춤 상품 선봬
9개 손보사 작년 신계약 164만건

카카오페이손보, 보험료 환급 상품 출시 8개월만에 70만명 가입 돌파
캐롯도 ‘축하포인트 지급’ 서비스

직장 다니는 30대 A씨는 4월 중 해외 여행을 앞두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여러 혜택이 담긴 상품을 속속 출시했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그는 “4월 여행을 앞두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을 가입하려한다”며 “예전에는 보험 가입이 번거로웠지만 최근에는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 혜택을 살펴보기 편해졌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 여러 혜택이 담긴 여행자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등 고객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월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귀경객 및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자보험 가입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D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신한EZ손해보험·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지난해 개인 해외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64만41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배(199.8%) 성장하면서 코로나 19 직전인 2019년(181만54건) 수준에 근접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환급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해외여행자수 급증에 따른 여행자보험 수요 맞이에 나선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해 5월 해외여행자보험을 출시했다. 해외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보험료의 10%를 ‘안전 귀국 환급금’으로 제공한다. 가입자의 75%가 안전 귀국 환급금을 받았다. 돌려받은 총 누적금액은 1억5800만원을 넘어

섰다.

보험 상품의 고질적인 문제인 보험금 청구 절차도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과 기술력을 통해 해결했다. 안전 귀국 환급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먼저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용자들이 조금이라도 보험의 효익을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은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7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월에는 약 20만명이 가입하면서 자체 월별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추구하는 보험시장의 ‘혁신’이 무엇인지 청사진을 공개했고, 사용자들의 선택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5일 ‘안전여행 축하 포인트 지급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고객이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축하 포인트를

지급한다.

만약 여행 중 사고가 있었다면 안내되는 절차를 통해 손쉽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사고가 없었다면 가입 시 결제한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롯포인트로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지급한다.

캐롯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엔데믹 이후 관광, 여행 산업이 점차 살아나는 추세 속 해외여행보험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해외여행자보험의 인기 배경으로 환급금 등 혜택과 고객 편의성을 꼽았다. 디지털 손보사를 중심으로 짧은 기간 저렴한 보험료로 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안전하게 귀국할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고객이 상품 가입 시 보장 선택이 가능하고 가격 조절도 할 수 있어 편의성 측면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총선 후 물량 쏟아진다... 전국 3.6만가구 분양

청약홈 개편 마무리... 분양 재개 수도권 1.1만, 지방 1.8만가구 공급

청약홈 개편이 끝나고 4월 아파트 분양이 재개된다. 지난 25일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부부 중복청약 가능,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신생아 특공 신설 등의 개정된 청약 규칙 시행으로 결혼 및 출산 가구의 청약 혜택이 커진다. 청약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3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총 35곳, 3만6288가구 중 2만922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이 1만1138가구, 지방은 1만8083가구다. 사·도별로는 경기 6842가구(9곳·23.41%), 광주 3964가구(2곳·13.57%), 인천 3753가구(3곳·12.84%)

등의 순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3월 청약홈 개편으로 잠시 중단된 분양시장이 봄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찾는 모습”이라며 “총선이 마무리된 4월 중반을 기점으로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단지로 DL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 건립되는 ‘그란츠 리버파크’ 36~180㎡ 407가구 중 32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 입지다.

동문건설은 평택 화양지구 6-2블록에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84~107㎡ 총 753가구를 분양한다.

대방건설은 수원시 장안구 일원에 짓는 ‘복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I·II’ 84~141㎡ 2512가구를 분양한다.

지방에서는 유립E&C가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원에 ‘일광 노르웨이숲 오피스포레’ 84~112㎡ 1294가구를 분양한다. 동해선 일광역 역세권 단지로서 단지가 가까이에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연장선인 기장선도 추진되고 있다.

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 카운티’ 415가구 중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도보 거리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 조성되는 ‘대구 범어 아이파크’ 418가구 중 84㎡, 14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근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위치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금융위, 중소·중견기업 11조+ α 지원

내달부터 신성장분야 저금리 대출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실시

내달부터 신성장분야로 진출하기 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11조원+알파(α)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참여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 분야로 신규진출하거나 확대투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6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대상은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9개 테마, 284개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다.

설비투자, R&D 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금리에 1%포인트(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또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이자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은 영업이익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이다.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거래 기업에 한해 기존 대출 중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서는 건에 대해 신청시 1회에 한해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은 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누리 기자 yul115@

고금리 여파... 강제·임의경매 역대 최대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강제·임의경매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7만3474건으로, 전달(7만2901건) 대비 573건 증가했다. 지난해 2월(6만6844건)과 비교하면 9.9%(6630건)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지난해 9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가 7만10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1월 7만건을 다시 넘어

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수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2만9814건으로, 1개월 만에 4655건 증가했다. 지난해 2월(8만6862건)과 비교하면 49.4%(4만2952건) 늘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난해 9월 11만건을 넘어선 이후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채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서울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차이가 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임의경매 집행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김대환 기자 kdh@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車보험 시간 단위로 가입가능

삼성화재는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 전용 상품인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할 때 가입

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이번 개정으로 고객은 원하는 기간을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일 단위(1일~7일)로만 보험을 가입해야 했다.

개편을 통해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로 확대했다. 단기간의 교대운전이나, 카셰어링 등 시간 단위로 보험가입을 원하는 고객 맞춤형 상품이다.

또한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하고 가입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김주형 기자

숨 쉬기도 힘든 고온서 거센 바람까지... 극한의 조건 속 '완성'

프로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

사람이 숨쉬기 힘든 극한의 고온과 거센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수소전기 트럭이 거침없는 주행을 이어갔다. 로봇이 자동차 문을 열고 닫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전기차 바퀴에 회전축을 연결해 고속으로 구동계 부품을 작동시킨다. 또 반도체 실험실을 연상케하는 밀폐 공간에서는 연구원들이 배터리를 조심스럽게 해체해 성분을 분석했다.

지난 3월 27일 찾은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의 전동화 차량 개발 핵심 연구 시설의 모습이다. 단순히 차량 개발을 넘어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부품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과거 '패스트 팔로워'로 불렸지만 지금은 더 이상 팔로워가 아닌 마켓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EV9 등의 전기차로 세계 3대 올해의 차를 모두 석권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전기차의 심장인 모터와 인버터를 연구하는 '전기차 동력계 실험실'. 이곳에서는 동력계 장비의 개수에 따라 크게 1축, 2축, 4축 동력계 실험실로 운영되고 있다.

1축 동력계 시험실은 모터와 인버터의 기본 특성에 대한 단품 시험이 이뤄지는 곳이었다. 모터의 토크, 전기 모터의 분당 회전수(rpm)를 입력해 모터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곳에서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할 초고성능 모터 실험이 한창이었다. 1축 동력계 담당 연구원은 "차세대 고성능 모터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모터"라며 "시험을 통해 모터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축 동력계 시험실은 모터와 인버터에 감속기, 구동축을 추가해 실제 차량의 구동계를 모사한 환경이 구축돼 있다. 맞은 편에 있는 4축 시험실에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실차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배터리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1,2축 시험실과 다르게 4축 시험실에서는 실제 배터리를 활용해 차량 구동계 전체를 평가했다.

상용차 개발을 위한 상용시스템 시험실과 상용 환경 풍동실도 방문했다. 상용시스템 시험실에서는 로봇 팔이 차 문을 세계 닫고 열기를 반복하는 데



현대차 남양연구소 전기자동차 동력계 시험실에 위치한 4축 동력계 시험실.

“

1995년 종합기술연구소로 세워
韓 최대 전기차 개발 산실 평가
승용·상용 등 전 차종 연구개발
로봇, 차 문 세계 닫고 열기 반복
24시간 동안 내구성 데이터 확보
2030년부터 전고체 탑재 양산 목표

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내구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24시간 내내 로봇이 시험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차량 부품 간 발생하는 민감한 소음을 잡아내기 위해 사방이 삼각뿔 모양 흡음재로 둘러 쌓여 있는 'BSR' 시험실에서는 다양한 온도와 진동 조건에서 발생하는 소음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상용내구시험팀 이진원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모빌리티의 발전방향이 전기차와 같이 점점 더 조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BSR 소음을 평가하는 시험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 환경 풍동실은 세계 최대 규모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했다. 내연기관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상용차를 연구하는 시험실에는 천장과 좌우 벽에 84개의 네모난 큐브 모양 태양광 솔라 시스템이 부착돼 있었다. 풍동실 내부는 실내 온도를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 실제 중동 지역 테스트 기준 온도인 45도에 맞춰진 풍동실 안에 들어가 보니 후덥지근한 열기가 느껴졌다. 5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마에 땀이 맺혔다.

환경풍동시험실에서는 혹서, 혹한의 상태에서 온도에 따라 효율이 달라

지는 배터리 충·방전 및 냉각 성능 시험도 진행된다. 이날 현장에서 고온 조건 테스트 시연과 함께 유동 가시화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풍동 내부에서 흰색 가스가 북미형 수소전기버스차량 앞면으로 분사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친환경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석실'을 방문했다. 이날 연구원들은 배터리 셀을 조심스럽게 해체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자체 연구 중인 배터리에 대한 성능, 내구성, 안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배터리는 '셀 해체실→전처리실→메인 분석실' 등의 순서로 이동하며 정밀한 점검이 이뤄진다. 셀은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을 사각형의 알루미늄 케이스에 넣어 만든 배터리의 기본 단위다. 이 셀을 해체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진행한다. 남양기술연구소는 1995년 세워진 종합기술연구소로 현재는 전기차 핵심 연구기지 역할을 한다.

현대차그룹은 이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적용할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뒤 이를 탑재한 전기차를 2030년부터 본격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의 위험성이 적고 주행거리가 길어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그룹은 지난해 향후 10년간 배터리 분야에 9조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기차 시대에는 내연기관차 대비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다양한 업체들이 합류하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기술의 상향 평준화속에서 현대차·기아는 작은 차이로부터 더 큰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연구개발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고려아연 "새 미래 50년 도약"

종로 그랑서울로 본사 이전
핵심가치·미래비전 담아 시작

고려아연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종로로 본사를 이전한다.

3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제련회사로 성장한 고려아연은 트로이카 드라이브로 상징되는 고려아연의 핵심가치와 미래비전을 담아 새로운 오피스에서 새로운 50년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논현동 사옥을 떠나 고려아연이 새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곳은 종로에 위치한 그랑서울빌딩이다. 4월말까지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사무실 공사를 완료 후 고려아연 및 계열사의 모든 부서의 구성원을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에게 종로는 낯선 공간이 아니다. 1974년 최기호 선대회장을 포

함하여 최창길 명예회장 등 총 7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를 본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장소이다.

약 6년간 종로구 서린동 건물을 본사로 활용한 이후, 1980년 현재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 논현동 사옥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본사 건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려아연의 미래성장엔진인 트로이카 드라이브(2차전지소재,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자원재활용)신사업 확장으로 인한 인원 증가와 부서간 업무 시너지를 위해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현재 논현동 사옥은 공간 부족 현상이 심해져 일부 부서는 본관 인근 별도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생산성 극대화과 소통 강화를 위해 새로운 사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고성능 레이스 경주차 선보여

'아이오닉 5 N eN1 컵 카'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기반의 전기차 레이스 전용 차량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국내 최대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스 '현대 N 페스티벌' 2024 시즌 개막을 앞두고 지난 30일 강원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공식 연습 라운드에서 경주용 차량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를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이오닉 5N eN1 컵 카는 최고 출력 478kW·650마력의 전·후륜 모터와 84.0 kWh의 고효율 배터리 등 첨단 전동화 기술로 주행 성능을 높인 아이오닉 5N에 서킷 주행을 위한 여러 요소가 추가돼 제작됐다.

현대차는 이 차량에 레이스 전용 슬릭 타이어, 낮고 넓은 스타일의 오버휀더를 적용했다. 또 휠 트래드(윤거)를 넓혀 핸들링 성능을 높이고 앞 범퍼 하단에는 프런트 립을, 후면에는 리어 윙



현대차가 인제 스피디움에서 최초 공개한 '아이오닉 5N eN1 컵 카'의 서킷 주행 모습. /현대차

을 추가해 공력 성능을 끌어올렸다. 경량화를 위해서는 운전석을 제외한 시트와 카 매트 등 불필요한 부품을 제거했고, 단조 휠과 섬유강화플라스틱(FRP) 후드 등 경량 제품을 활용했다.

아이오닉 5N eN1 컵 카는 올 시즌 시범 진행되는 'eN1 클래스' 경기 전용 경주차로 운용된다. eN1 클래스 레이스는 올해 현대 N 페스티벌 개막전이 열리는 다음 달 27일 이후 총 5라운드에 걸쳐 10차례 진행된다. /양성운 기자

SK지오센트릭, 플라스틱 포장재 개발

울촌화학과의 생애계 활성화 위한 협약

SK지오센트릭과 울촌화학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크게 높여줄 지속가능한 고성능 플라스틱 포장재 개발에 나선다. SK지오센트릭과 울촌화학은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기술 개발 및 생애계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그동안 쌓아온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단일 소재의 고품질 플라스틱 연포장재를 개발해 나간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플라스틱 연포장재는 국내에서만 연간 36만톤이 사용되지만 여러 소재별로 분리 배출이 거의 안돼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라며 "단일 재질로 고품질의 파우치형 포장재를 만들면 재활용이 훨씬 수월해져 자원순환 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폭스바겐 ID.4, '고질라 X 콩: 뉴 엠파이어' 깜짝 등장

워너 브라더스와 소비자 점점 확대

폭스바겐이 워너 브라더스와 손잡고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한다.

31일 폭스바겐에 따르면 몬스터버스의 새로운 액션 블록버스터 시리즈, '고질라 X 콩: 뉴 엠파이어'에 참여했다. 폭스바겐과 워너 브라더스 및 레전

더리 엔터테인먼트 협업으로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ID.4가 이번 영화에 새로운 캐스트로 등장할 예정이다.

'고질라 X 콩: 뉴 엠파이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 힘을 합친 '고질라'와 '콩'이 최강의 팀워크를 펼치는 액션 블록버스터다. 지난해 12

월 공개된 예고편은 1억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3월 27일 전 세계 첫 개봉일에 앞서 외화 예매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021년 개봉한 '고질라 vs 콩'의 후속작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폭스바겐 ID.4가 영화 내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성운 기자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F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정형구
미래어드생명과학
이사

■ 행사개요

- **행사명:**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주최:**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 **후원:** 충청북도
- **등록:** 운영사무국 M&C기획 02-721-9818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포럼에 참가한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Registration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M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3:50	이득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섹션1	13:50~15:3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교수 "Organoids for Post-Radiotherapy Regeneration of Salivary Glands, the RESTART study" 강연2: Ryuichi Okamoto 교수 "Clinical application of patient-derived organoids"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현황과 전망"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민간전문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
브레이크타임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4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정형구 미래어드생명과학 이사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 임승원 전 한국IF협회의 상근부회장 "바이오벤처기업의 IPO 전략"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
폐회	17:00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통신3사, 3만원대 5G요금제 격돌

SKT “데이터량 최다” KT “청년 2배” LGU+ “OTT할인”

4~6GB 데이터, 3.7만~3.9만 구성
청년·온라인 요금제로 혜택 제공
우주패스·디즈니+ 등 부가서비스
격차 줄었지만 아직 알뜰폰 더 저렴

#. 30대 직장인 A씨는 알뜰요금제를 쓰고 있다. 평소에는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해 데이터 사용을 적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최근 통신3사에서 5G 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알아봤지만 알뜰폰이 더 저렴해 갈아타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최근 통신 3사가 3만원대 요금을 출시하면서 가계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제공량, 데이터 이월기능, 연령대별 특화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결합 등 혜택 구성도 세분화됐다. 다만, 혜택이 다양해진 만큼 통신사별로 데이터 제공량이 다르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할인 혜택이 상이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SKT 요금제 비싸지만, 데이터량 많아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3사는 최근 5G 데이터 저가구간의 3만~4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했다.

SK텔레콤은 월 3만9000원에 6GB를 제공하는 ‘컴팩트’와, 월 4만5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컴팩트플러스’ 등 요

금제를 내놨다. 선택약정(25% 요금할인)을 적용하면 각각 월 2만9210원, 3만3725원이다. 같은날 LG유플러스도 월 5GB를 제공하는 ‘5G 미니’ (월 3만7000원) 요금제를 선보였다. KT도 앞서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 ‘5G슬림 4GB’ (월 3만7000원) 요금제를 공개했다. 1GB당 요금을 비교해 보면 3만원대 구간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저렴하다. SK텔레콤이 6500원, LG유플러스 7400원, KT 9250원 순으로 낮았다.

이에 더해 이동 3사 모두 기존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늘렸다. SK텔레콤은 베이직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8GB에서 11GB로, 슬림(월 5만5000원) 요금제 제공량을 11GB에서 15GB로 늘

린다. LG유플러스도 ‘5G 슬림+’ (월 4만7000원)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6GB에서 9GB로 상향 조정했다. 월 5만5000원의 ‘5G 라이트+’는 12GB에서 14GB로 늘렸다.

KT는 기존 기존 4만5000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5GB에서 7GB로 늘리고 월 5만5000원·10GB 데이터를 14GB로 확대했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는 데이터를 2배 많이 제공한다.

◆청년 및 온라인 혜택 확대 SK텔레콤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3만7000원에 데이터 6GB를 제공하는 ‘0청년 3’ 요금제를 신설했다. 그러면 월 4만3000원의 0청년 43의 제공 데이터를 6GB에서 8GB로, 월 4만9000원

의 0청년 49 데이터 제공량도 12GB에서 15GB로 늘렸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도 눈길을 끈다. SK텔레콤은 ‘다이렉트 5G 27’ (월 2만7000원, 6GB)과 ‘다이렉트 5G 31’ (월 3만1000원, 8GB) 등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단말기 구입 없이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유심(USIM)만 구입했을 때 가입 가능하다. 특히 업계 최초 2만 원대 온라인 요금제인 ‘다이렉트 5G 27’은 3만 원대 ‘컴팩트’ 요금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월 요금은 30%가량 저렴하다.

KT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요고’는 최저 3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총 13종에 달할 만큼 세분화됐다. 저가 구간은 월 3만원대 데이터 5GB, 월 3만20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의 ‘5G 다이렉트 30’은 월 3만7000원에 데이터 5GB(소진 시 최대 400kbps 에 데이터 5GB)를 제공하는 구성으로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OTT 등 부가혜택 ↑… 5G는 알뜰요금 ‘저렴’

SK텔레콤은 데이터 무제한과 우주패스 구독 혜택을 더한 ‘5GX 프리미엄 (월 10만9000원)’ 요금제도 신설했다. ‘5GX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세븐일레븐 및 투썸플레이스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 ‘우주패스 라이프’를 무료로 제공 받는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경우 정가가 월 1만4900원인데, 사실상 무료로 쓸 수 있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월 9900원의 디즈니 플러스(+) 할인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일부 고가 요금제에서만 할인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전 요금제에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육아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 데이터 제공량도 2배 늘렸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만 24개월 미만 육아가구 대상으로 데이터 5GB 쿠폰을 제공해 왔다. 다음달부터는 10GB 데이터를 제공하고, 대상 연령도 생후 36개월과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 해로 확대해 총 4년간 제공한다.

이처럼 통신 3사의 3만원 대 요금제가 쏟아지면서 알뜰폰과 요금제와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알뜰폰 요금제의 5G 요금의 경우 6GB에 1만원대로 현재까지 조금 더 저렴하다. 다만, 이동사 5G 요금제의 경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할인받거나 청년 대상으로는 데이터 제공량이 더 많다. 또 커피, 영화, 로밍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와이파이를 기본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U+, 여의도서 2300여명 규모 전시 개최

초대형 팝업전시 ‘무너의 봄 피크닉’ 대표 캐릭터로 문체부장관상 수상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 맞춰 선보

LG유플러스는 4월 14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대표 캐릭터 무너를 소개하는 초대형 팝업 전시 ‘무너의 봄 피크닉’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무너는 당당한 MZ세대 사회초년생이라는 페르소나를 가진 LG유플러스 대표 캐릭터다. 지난해 온오프라인으로 사회초년생이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전달해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202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캐릭터 부문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 무너 캐릭터

를 활용해 매년 400여만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 축제인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 맞춰 팝업 전시를 선보였다. 벚꽃 구경을 위해 발걸음한 시민들이 무너와 함께 더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여의도나루역 인근 한강공원에 약 2300여명 규모의 전시를 열었다.

먼저 유람선은 무너 캐릭터로 꾸려진 무너호로 탈바꿈했다. 무너 인형을 뽑는 뽑기게임, 무너를 자유롭게 그리며 아트월을 꾸미는 사생대회, 아트월에 숨은 벚꽃 무너를 찾아내는 보물찾기, 무너 캐릭터가 적용된 즉석 사진부스 무너 네컷 등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매일 소소한 미션을 달성한 이용자 선착순 50명에게 무너 캐릭터 피크닉의

자를 증명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MZ세대를 겨냥해 무너 조형물 4개가 동원된 초대형 포토존 등 다채로운 포토존은 물론, 무너 캐릭터 파라솔 그늘 아래에서 도시락, 라면, 치맥 등을 즐길 수 있는 쉼터도 구성했다.

무너 굿즈를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무너스토어도 운영한다. 무너 굿즈는 인형, 피규어, 양말, 에코백 등 50여종이다. U+멤버십 인증 시 10% 할인해주며 Z세대 전용 브랜드 유쓰 회원 인증 시 무너 캐릭터 엽서를 매일 선착순 500명에게 무료로 증정한다.

회사는 이번 팝업 전시에서 새롭게



LG유플러스 모델이 무너 굿즈를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무너스토어’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U+

선보인 무너카카오톡 이모티콘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한정판 이모티콘 굿즈 5종도 공개한다. 이모티콘 구매 후 인증하면 무너 네컷 촬영권을 제공한다.

김다림 LG유플러스 IMC담당은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은 무너가 올해 여

의도 봄꽃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벚꽃 구경을 위해 발걸음한 시민들이 벚꽃 풍경뿐 아니라, 무너와 함께 봄 소풍을 즐기며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인포뱅크, AI 역량강화 위한 신임 사내·외 이사 선임

홍승표·홍종철 사업부 대표 강진범 (주)자이냅스 CTO 선임

인포뱅크(주)(대표 박태형)가 지난 28일 성남시 분당구 인포뱅크 사옥에서 제 2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내이사과 사외이사를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중에서는 ▲ 2023년 연결 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 ▲ 사내·사외이사 선임 ▲ 감사 선임 ▲ 이사 보

수한도 승인 ▲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다.

사내이사로 인포뱅크 홍승표 아이컴(iComm) 사업부대표, 홍종철 아이엑셀(iAccel) 사업부 대표, 사외이사에는 강진범 (주)자이냅스 CTO가 선임됐으며, 이성구 인포뱅크 감사가 재선임됐다.

인포뱅크는 이번 신임 이사진 선임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 개발과 시스템 구축 역량을 확보해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AIaaS, A

I as a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동시에 스타트업 투자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내이사로 선임된 홍승표 아이컴 대표는 고객사 만족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를 겸비한 B2B 메시징 업계 전문가다.

홍종철 아이엑셀 대표는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액셀러레이터다.

강진범 사외이사는 데이터 및 AI 분야 전문가다. /김서현 기자 seoh@

대한전기협회, 아파트 정전사고 안전교육

현장 대처능력 향상 도움 기대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주택(아파트)의 정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대한전기협회는 4월 23일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대한전기협회 실증연구센터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전기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교육과정은 ▲공동주택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소개 ▲공동주택 정전현황 및 노후 변압기 고장원인 분석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사업 소개 ▲공동주택 점검, 고장사례 및 예방대책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실제 고장사례와 분석 내용을 소개하는 등 정전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를 구체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현장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양성운 기자 ysw@

개미들 “코스피, 지금이 고점?”

고위험 ‘하락 ETF’ 3299억 베팅

KODEX 인버스 ETF 512억 매수
150선물인버스ETF 1132억 사들여

“증시, 당분간 중립이상 환경 전망
반도체 중심 실적개선 기대감 유효”

국내 증시가 ‘밸류업 프로그램’, 반도체 랠리 등에 힘입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고수익을 노리고 코스피 지수 하락에 투자하고 있다.

3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운용의 ‘KODEX 200선물인버스2X’ 상장지수펀드(ETF)를 329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곱버스’로 불리는 이 ETF는 코스피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1% 하락할 경우, 2%의 수익을 낸다. 그 반대로 1% 오르면 수익률은 -2%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으로 꼽힌다. 개인들은 ‘KODEX 인버스’ ETF 역시 512억원어치 사들였다. 이 ETF도 코스피 등락과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1% 하락



하면 1% 이익을 얻는다.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150 선물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ETF도 1132억원가량 순매수했다.

이같이 개인들이 지수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것은 최근 코스피가 2년여 만에 2700선을 돌파하는 등 코스피 지수가 고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 하락 전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 기간 동안 국내 증시는 큰 변동이 없어 투자자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12.32% 하락했으며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는 11.89% 떨어졌다. ‘KODEX

인버스’ ETF도 4.88% 내렸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등 대체로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어 해당 ETF를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4월 중 2800선 진입을 시도할 전망”이라며 “사실상 이번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상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지점으로 이번에 그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당분간 증시는 중립 이상의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점이 우호적 소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금리와 달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수출 전망이나 이익에 대한 기대도 크게 훼손될 개연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등락 범위가 높아진 상태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내 증권사는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야경. /유토이미지

‘자사주 소각’ 세제지원 규모따라 달라질 듯

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증권사, 가이드라인 보고 결정 분위기
미래에셋증권 등 4곳만 소각 결정

국내 증권업계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정을 끝낸 가운데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여부도 밝혔다. ‘밸류업 열풍’에 몇몇 증권사는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지만 대다수 증권사는 5월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곳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 네 곳 정도다.

NH투자증권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 보통주 417만 주를 매입·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500억원 상당의 주식으로 NH투자증권의 지난해 별도 당기순이익 증가분이 965억원의 절반에 이른다. 키움증권은 약 645억원 규모의 당사 자사주 209만5345주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소각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월 22일 보통주 1000만주(822억원)의 소각을 결정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오는 5월 자기주식(우선주) 637억원 규모에 달하는 577만895주를 소각한다고 3월 29일 공시했다.

이렇듯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은 배당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주의로 꼽힌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기 회사 주식을 기업이 직접 사들이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본 조달에 도움 된다는 측면에서 주주들의 환영을 받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주주들은 주당순이익(EPS)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바란다”며 “예전에는 자사주 매입만으로도 주주환원 의지가 있다고 봐왔지만, 이제는 소각까지 해낸 기업만 실제로 주주환원을 이행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만 지속하는 기업을 보는 시선은 주주가치 극대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각이 안 된 자사주는 최대 주주의 우호 지분이 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신증권과 신영증권처럼 자사주를 임직원 성과 보상용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취지에는 맞으나, 소각 규모나 계획은 5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허정은 기자 zelkova@

2년7개월 만에 최고가… 외국인·기관 ‘Buy’

metro 관심종목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 8만2000원대 안착
증권가 목표주가 10만5000원 제시
외국인들, 2주간 3.9조 규모 매수
기관 1.3조 매수, 개인은 5.1조 매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주가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1년 만에 흑자반전이 기대되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상향하며 낙관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 대비 1600원(1.98%) 오른 8만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2021년 8월 4일(8만2900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가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25일 차익 실현 매물 출하로 7만78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8만2000원대에 안착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한 반면 개인들은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18일부터 22일까지 2조3099억원을 순매수한데 이어 지난주 1조6086억원을 사들였다.

기관도 2주간 1조2653억원을 매입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박스권에 갇혀 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5조1003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인공지능(AI)용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생성형 AI 구동을 위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5월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주 전보다 5.1% 상향된 5조원대로, 1년 전 6400억원과 비교해 보면 8배 이상 증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실적이 1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확인했다”며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메모리반도체(DS), 스마트폰(DX) 실적 개선에 따라 5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향후 HBM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주가를 최고 10만5000원으로 제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복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 메모리 가격이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연간 실적 역시 상향폭이 큰 상황이라서 D램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낸드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2분기부터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메모리 부분의 이익을 기존 대비 54%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주가는 경쟁업체들과 달리 HBM 관련된 우려로 인해 메모리 업황 호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HBM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입장을 반영한 주가 움직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증권사, ST 플랫폼구축 다 해놨는데…”

정부 STO 법제화 지지부진에 ‘한숨’

유진투자, 법제화면 바로 투자 가능
토근증권 컨소시엄 구성 등 준비 박차

증권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토근증권(ST) 플랫폼 구축에 나선 가운데, 토근증권발행(STO) 법제화의 진척은 불투명해지면서 주요 주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 토근증권 관련 항목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미 실제 구현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로, 토근증권의 법제화만 이뤄진다면 바로 MTS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하나증권 역시 MTS 내 조각투자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올해 초 디지털자산실을 신설하고, STO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증권사들은 토근증권 금융·비금융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토근증권 워킹그룹,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ST프렌즈, KB

증권의 ST 오너스, NH투자증권 STO 비전그룹, 신한투자증권의 STO 열라이언스, 삼성증권의 파이낸스 3.0파트너스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은 ‘프로젝트 펄스’를 출범시키면서 함께 손을 잡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제화는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됐을 때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 내 움직임이 있는 만큼 토근증권 사업 자체는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제화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권사들이 STO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인력을 늘리는 과정이 무의미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회에서는 정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지면서 STO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하은 기자 godhe@

전기차도 5단계 에너지효율 표시한다… “고효율 개발 촉진”

오늘부터 1~5등급 표시 의무화
전기차 모델중 2.2%만 1등급 표시
1등급, 현대차·테슬라 포함 6개

4월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에 5단계의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전기차 모델 중 2.2%만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1등급으로 표시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에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이 부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는 산업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신규 전기차모델에만 적용됐고, 4월부터는 기존 전기차모델에도 적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아이오닉3개 모델), 테슬라(모델32개 모델), 스마트솔루션스(1개 모델) 등 6개 모델로 전체 전기차 모델 중 2.2%에 해당한다.

이어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1등급 전기차는 킬로와트시(kWh) 당 5.8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2등급은 5.7~5.0km/kWh, 3등급 4.9~4.2



현대차 아이오닉 6.

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다.

최근 전기차 등록 대수와 등록 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8만9000대에서 2023년 54만4000대로, 등록 모델은 2019년 27개 모델에서 2024년 278개 모델로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연간 주행거리 1만3323km 가정)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642.98원으로 가정하면,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평균 연료비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 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시장 동향, 제도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안전보건공단

방문판매 점검원에도 맞춤 안전보건정보 제공

안전보건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은 방문판매 점검원에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지난 2020년부터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에 재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판매 점검원의 경우, 이동이나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노출돼 있으나, 이동노동이라는 특성상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방문판매 점검원이 업무 시작 전 업무용 앱을 켜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날씨·요일에 따른 15초 분량의 안전교육 영상이 자동 재생된다.

또 조건별 송출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필요한 안전보건대책·기상별 안전 행동요령 등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http://service.kosha.or.kr)에 접속해 인증키를 받아 해당 업무용 앱에 적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업무용 앱 변경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직접 주소로 접속해 공단 시스템의 ‘스팟교육영상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현재 위치 기반 영상도 바로 볼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역맞춤 고용촉진장려금 실시 사업주에 1인당 720만원 지원

고용부, 서울남부고용센터 등 5곳 여성가장 등 집중취업지원서비스제공

지역 고용상황에 맞춘 취업취약계층 대상 고용장려금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 5개 고용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시행되며,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이다.

지역별 사업을 보면, 광주고용센터는 대우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변동 상황 발생에 대비, 광주시·광산구청 등과 협업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 및 이직자 발생 시 신속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주고용센터는 지역



지난 3월 2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4 인천공기업·우수기업 청년취업 설명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업체 부스에서 전형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내 거주 결혼 이민자 중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인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협업체 이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청주고용센터는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0.1%에 달하고 음성·진천 등 인근지역 식료품 제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체 50대 이상 장기수급자에 대한 식료품제조업 일자리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 보건의료·복지 등 개선 필요

농진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원·어린이집 등의 공급이 부족했다. 반면 농어촌 주민의 삶에 대한 행복감은 크게 향상됐다.

농진청이 31일 발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5년 전인 2018년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도시(62.3점→64.0점)에 비해 농어촌 행복감(58.7점→62.2점)이 더 크게 상승해 도시와의 격차를 좁혔다.

반면,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IPA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이 여전히 뒤처졌다. 농진청은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이용이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부족했다.

또 경제활동 부문에서, 한 달 생활비를 도시보다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이 감소했다.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농어촌 응급 의료 기관 시설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이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확충 등에도 도시에 비해 만족도 등이 낮게 나타났다.

농진청은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안건으로 보고한 뒤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 지원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서비스 시행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고용상 차별 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노사발전재단은 31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식 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개 사업장의 차별개선을 권고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중 임금 상승은 2458명(1인 평균 81만원), 정규직 전환 306명,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 전환은 120명이다.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며,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韓, 베트남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협력

우리 정부가 베트남 북부 자원순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베트남 정부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현지 수주도 활발해질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지난 25~29일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한 바 있다”며 “베트남 내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환경부와 함께 기획해 국내기업이 베트남 재활용시장에 진출하는 데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6일 하노이 소재 천연자원환경부에서

판뚜영총 법제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판민전 베트남 총리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우리 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다수 포진한 베트남 북부지역에 자원순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베트남 내 국내기업들이 안심하고 산업폐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순환 관련 국내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데뷔 30주년 기념

나윤선 Elles 콘서트

DATE: 2024.04.17 (WED) 19:30

VENUE: 롯데콘서트홀

TICKET: LOTTE CONCERT HALL **yes24**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B석 60,000원
문의 070-8671-8103



Alive! **얼라이브! 맥스 바이탈**

나윤선 "Elles" 콘서트 관람 고객 모든 분들께
고급 액상 멀티비타민 얼라이브 맥스바이탈을 드립니다
[7개입 선물세트]



용인시, GTX-A 구성역 '6월 개통'... 연계 교통망 확충

굴착 중 암반 발견... 공사 지연 버스노선 경로 조정·운영 확대 복합환승시설 갖춘 교통허브 계획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구성역 개통에 맞춰 주변과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노선이 3월 30일 첫 운행을 시작하며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렸다. 다만 구성역의 경우 깊이 40m의 지하 공간 굴착 과정에서 큰 암반이 발견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돼 개통 시기가 6월로 늦춰졌다. 시는 구성역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잘 챙기는 한편 구성역 개통 이후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연계 교통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GTX 구성역이 개통되면 1번 출구에서 수인분당선의 구성역으로 이동해서 버스를 탈 수 있는 만큼 시는 기존 버스 노선의 경로를 조정하고, 시



GTX 구성역 종평면도

/용인시

민 수요가 많은 일부 노선은 운행 차량을 늘려서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6월까지 수인분당선 구성역 인근 버스정류장 4곳에서 광역버스 1241번을 비롯해 820번(시정 방면), 33번(동백 방면), 670번(수지 방면) 등 29개의 시내·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수요를 분석해 증차한다.

택시 정거장은 GTX 구성역 1번 출구 앞과 수인분당선 구성역 2번 출구 앞 등 2곳에서 운영한다.

시는 이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구성역 일대를 고속·시

외·광역버스는 물론 지하철과 택시 등을 모두 연계하는 종합 복합환승시설을 갖춘 교통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가 오는 2029년 보정·마북동 일대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을 비롯한 첨단기업들의 연구시설, 1만호 가량의 주거시설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 도심인 플랫폼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역 일대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와 GTX 역사를 연결하는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를 만드는 것을 고려한 구상이다.

오는 2028년 GTX-A 노선이 모두 개통하면 구성역에서 3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삼성역에는 더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어 IT 등의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용인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이 반영되어 건설되면 성남·광주에서 경강선 용인 남사역(가칭)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1년 앞당기자고 주장해 관철했고,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선과 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구 연장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시장은 현재 복선인 SRT 노선이 평택 지제~오성 구간에 복복선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SRT 수서~지제 구간도 복복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 계획이 검토되면 SRT 구성역을 신설해서 구성역 일대를 종합적인 복합환승 시스템을 갖춘 교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용인(경기)=유진채 기자 yuji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활동 시작

경기도는 '2024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으로 채용한 회계·사무 분야 경력보유여성 등 60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은 회계·사무 분야 경력을 보유한 여성 등을 공공사무원으로 양성해 소상공인이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서류 준비,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유진채 기자

경북도

'경북기능경기대회' 막 올라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가 오늘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구미 금오공고, 경주 신라공고 등 도내 9개 경기장에서 366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업용 드론 제어, 모바일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포함해 49개 직종의 경기가 치러진다.

도는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올해는 제5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경북에서 개최되는 만큼 5연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장영우 기자

전주시

공영 도시농업 체험농장 제공

전북 전주시가 도시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 도시농업 체험농장을 제공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덕진구 도도동 내 시유지(7000㎡)를 활용해 '공영 도시농업 체험농장 도란도란'을 조성하고 오는 4월 13일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도시농부 교육 텃밭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경우에만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13일 개장 이후부터 11월까지 도시농부 텃밭 교육(10회)과 1평짜리 텃밭 2개가 제공된다.

또 체험 텃밭의 경우 전주시민 중 비농업인 세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텃밭 관련 교육을 제공되지 않지만 자유롭게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전주(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합천군

황매산 숲속야영장 개장식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이 황매산 숲속 야영장 개장식을 가졌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개장한 합천 황매산 숲속야영장은 2022년 착공해 2023년에 완공했으며, 총 사업비 29억원을 들여 29,611㎡ 규모의 야영장을 조성했다.

구조는 캠퍼하우스 11동, 카라반 15동, 텐트사이트 31개소 등 휴양·여가 공간을 구축했다.

예약방법은 합천군청 황매산군립공원 홈페이지에서 매월초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예약자가 선정된다. /합천(경남)=이도식 기자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1358교 불법촬영 기기 불시점검 실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점검 올해 학교당 1회 점검 기본 진행 불법촬영 인식 캠페인 등 예방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1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총 1358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기기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학교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외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했다.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철저한 불시 점검으로 진행한다.

점검은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서 이뤄진다.

올해는 학교당 1회 점검 기본으로 진행된다. 추가 점검이 필요한 학교

는 시설노후도·남녀학생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뒤 2회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도 점검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불법촬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인식 개선 캠페인과 홍보 활동 등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교 구성원들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hj@

"마음 힘들 때 동네의원으로 오세요"

부산시, 마음건강돌봄 사업 2년 연장

부산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한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은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할 시 의사 상담 또는 선별도구(PHQ-9)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역의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현재 부산지역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198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사업기간 내에는 동네의원에서 진료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연장 추진을 통해 진료 전 대기실에서 사업 안내, 참여 의향확인 등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과정이 추가됐다.

또 정신의료기관 치료를 우선 권고하던 방식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선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구·전남·부산·경북, 기회발전특구 신청

산업부, 접수 내용 검토 절차 완료

대구가 SK C&C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데이터 센터, 경북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생산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기준 대구와 전남, 부산, 경북 등의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분권형·자율형 특구'다.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할 수 있게 추진하는 제도다.

세제와 재정,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로 지원되는 만큼 기업의 지방투자자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구는 SK C&C는 물론 엘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청송군, 도시환경 조성에 414억 투입

건설·새마을 분야에 투자

경북 청송군은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건설·새마을 분야에 예산 414억원을 투입한다. 군에 따르면 댐·발전소 주변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억 7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는 2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 3억 1000만원을 들여 광덕교(진보면), 마평교(주왕산면), 어천교(파천면) 등 2중 시설물(연장 100m 이상 교량) 정밀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청송교(청송읍, 추강교(현동면), 송강2교(파천면), 덕천교(파천면)에 대한 보수공사도 진행해 교량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상습가뭄지역인 안덕면 지소리, 현서면 모계리 지내 만안·두루골지구 발기반 정비사업에 22억 5200만원을 투입한다.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74억원), 안덕면 지소리 구덕지구 발기반정비사업(18ha), 개일리고목곡지개보수공사 등은 올해 마무리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저수지와 농업기반시설물 64지구(사업비 76억원)도 개·보수한다. /청송(경북)=장영우 기자

“음료·디저트에 벚꽃 활짝... 봄 한정판 식음료 맛보세요”

주류·음료업계 ‘봄 마케팅’

호가든 ‘여의도 봄꽃축제’ 후원 ‘벚꽃사진관’ 콘셉트 포토존 운영

무학 ‘좋은데이 벚꽃 한정판’ 출시 벚꽃 디자인 소주 100만병 판매

스타벅스 봄 시즌음료 선보여 피스타치오 크림 라떼 등 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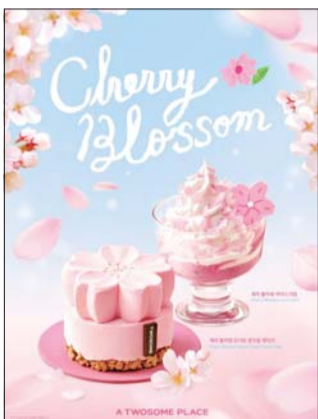
호가든이 벚꽃명소 여의도에 호가든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다. /오비맥주



좋은데이 벚꽃 한정판 /무학



스타벅스가 봄 시즌 음료를 선보였다. /스타벅스



체리 블라썸 디저트 /투스셈플레이스

최근 날씨가 한층 포근해지며 주류 및 음료업계에도 봄이 찾아왔다. 업계는 봄 시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상품을 제안·출시하거나 패키지에 봄을 담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봄을 대표하는 벚꽃을 활용, 시즌 한정 벚꽃 에디션 및 메뉴를 출시해 희소성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호가든은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여의도 봄꽃축제’의 단독 후원사로 참여해 봄 나들이 방문객들에게 호가든 맥주와 다채로운 이벤트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리는 4월 2일까지 영등포구 축제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호가든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먼저, 벚꽃길이 시작되는 지점에 ‘벚꽃 사진관’ 콘셉트의 포토존을 운영한다. ‘호가든 로제’의 상큼한 핑크빛을 담은 구조물을 활용해 벚꽃나무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촬영한 사진을 지정해 시타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는 방문객에게는 호가든 비어버스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벚꽃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타나는 ‘호가든 비어버스’에서는 ‘호가든 로제’, ‘논알코올 음료 호가든 0.0 로제’, ‘호가든 오리지널’, ‘호가든 애플’을 만날 수 있다. 호가든 맥주를 구매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GS25 및 축제 현장 인근 호가든 판매 업장 연계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종합주류회사 무학은 봄꽃 개화시기에 맞춰 소주 ‘좋은데이 벚꽃 한정판’을 출시했다. 좋은데이 벚꽃 한정판은 벚꽃을 상징하는 분홍색을 목상표와 주상

표, 보조상표 등에 입혀 제품 패키지 전체에 벚꽃 디자인을 적용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했다.

상표에는 무학캐릭터가 벚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봄을 즐기는 모습을, 보조상표에는 전국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군항제 개최 소식을 담았다. 좋은데이 벚꽃 한정판은 음식점용으로 100만병 한정 출시돼 주요 상권에서 판매된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도 봄 특수를 노린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봄 시즌 음료 3종을 선보였다. ‘슈크림 라떼’는 천

연 바닐라 빈이 들어간 슈크림의 달콤함과 진한 바닐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음료로 2017년 첫 출시 이후 스타벅스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대표 음료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는 초록 빛깔의 봄철 새싹을 담은 ‘피스타치오 크림 라떼’와 달콤한 딸기의 색감이 더해진 ‘카스텔라 크림 블 딸기 블렌디드’도 새롭게 출시했다.

투스셈플레이스는 벚꽃 개화철을 맞아 ‘체리 블라썸’ 테마의 봄 시즌 한정 디저트 2종을 출시했다. 벚꽃 한 송이를 형상화한 프리미엄 미니 케이크인 ‘체리 블라썸 요거트 생크림 케이크’와 벚꽃 모양의 블라썸 초콜릿이 올라가는 ‘체리 블라썸 아이스크림’을 내놴다. 해당 디저트는 벚꽃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봄 한정 패키지나 메뉴 등 그 계절에만 만나볼 수 있는 신제품 출시는 이제 업계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며 “올해 전국 벚꽃 개화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질 전망을 보이며서 업계 또한 평소보다 발 빠르게 봄 시즌 마케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현대백, 패션브랜드·엔터 등 K-콘텐츠 세계에 알린다

‘더현대 글로벌’ 론칭

경쟁력 있는 韓 토종 브랜드 소싱 해외 리테일 매장서 운영 플랫폼

수수료 등 부담 덜어 비용 30% ↓ 日 파르코와 협약, 시부야에 팝업



일본 파르코 시부야점 전경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이 해외 현지 리테일과 손잡고 한국 토종 패션 브랜드와 엔터테인먼트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백화점은 경쟁력 있는 한국 토종 브랜드를 소싱해 해외 유명 리테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신개념 K콘텐츠 수출 플랫폼 ‘더현대 글로벌’을 론칭한다고 31일 밝혔다.

더현대 글로벌은 현대백화점이 ▲해외 시장에서 선보일 국내 브랜드 및 콘텐츠 발굴 ▲통관을 포함해 내륙 운송과 창고 운영, 재고 관리 등 상품 수출입 및 판매에 관한 제반 사항 총괄 ▲매장 위치, 운영 방식 등을 해외 유명 리테일과 직접 협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글로벌 매장 대부분을 경쟁력 있는 토종 중소

·중견 브랜드로 채울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브랜드는 공간 대여, 인테리어, 별도 판매 수수료 계약 체결 등의 부담을 덜게 돼 직접 해외 리테일에 입점하는 것보다 3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리테일 입장에서 현대백화점의 검증된 신진성 있는 브랜드로 MD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서로 원원할 수 있는 구조다.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글로벌을 론칭하게 된 건 현대백화점 특유의 K콘텐츠

바탕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라 판단에서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부터 더현대 서울 등에서 K패션·K엔터·K웹툰 등 기존 백화점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잇따라 선보이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중국·동남아 등 해외 유명 리테일 기업들이 현대백화점에 협업을 요청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케팅, 이미지 등 현대백화점을 통해 오프라인 리테일 진출에 성공한 토종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 니즈와도 무관치 않다.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비용과 리스크 때문에 주저하는 이들을 위해 현대백화점이 해외 진출을 윈스톱 지원하는 전초기지 역할 수행에 나서려는 것이다.

더현대 글로벌의 첫 번째 무대는 일본이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일본 대형 유통 그룹 파르코와 더현대 글로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53년 설립된 파르코는 일본 다이마루와 마츠자카야 백화점 운영사인 J.프론트리테일링의 자회사로 시부

야점 등 총 1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에서 파르코 점포는 ‘아트&컬처’를 키워드로 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백화점과 파르코는 일본 도쿄 최고의 ‘MZ 쇼핑몰’로 꼽히는 파르코 시부야점을 시작으로 일본 주요 도시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시부야점에서 1호 팝업스토어로 노이스 매장을 오픈하며, 이후 이미지, 마케팅, 미스치프 등 11개 브랜드에 대한 단독 팝업스토어를 총 660㎡(약 200평) 규모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더현대 글로벌 론칭은 기성 패션 MD에 머무르던 기존 백화점의 틀을 깨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없던 브랜드와 콘텐츠를 끊임 없이 제안하는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K패션 브랜드 등과 동반성장하며 더 많은 고객에게 인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나라셀라-롯데마트 가성비 사케 출시

나라셀라가 롯데마트와 협업해 가성비 사케를 선보인다.

나라셀라는 롯데마트 창립 26주년을 기념해 ‘시치켄 후린비잔 준마이’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라셀라에 따르면 ‘시치켄 후린비잔 준마이’는 롯데마트가 국내 1호 사케 디플로마 차진선 소믈리에와 함께 동서양을 막론한 모든 음식과 어울리는 사케를 찾아 테이스팅 후 선정한 제품으로 특히 한식과 일식에 함께 즐기기에 적합하다.

또 이 제품은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 사케 준마이 부문에서 금상 등을 2017년부터 7년 연속 수상, 쿠라 마스터는 3년 연속 수상해 품질을 인정받아 왔다.

‘시치켄 후린비잔 준마이’는 일본 야마나시현 카이코마가타케산의 정수 ‘하쿠슈’와 쌀을 사용해 빚은 사케로 준마이 다이긴조 양조 방식으로 만든 최상의 준마이이다. 천도 복숭아 풍미와 상쾌한 산미, 그리고 귀리, 견과류를 연상시키며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이 드라이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이청하 기자



시치켄 후린비잔 준마이 /나라셀라

롯데하이마트, 창립 24주년 ‘연중 최대혜택’

이달 한달간 최대 500만원 캐시백

롯데하이마트가 봄 인기 가전부터 이사 및 혼수 가전, 자체브랜드 ‘하이메이드’ 상품까지 고객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창립 기념 행사를 기획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오는 4월 한 달간

‘창립 24주년 페스티벌’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상품 할인, 캐시백, 롯데 모바일 상품권 증정 등 연중 최대 혜택을 제공한다. 방침이다.

롯데하이마트는 다품목 구매 혜택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세탁기, TV 등 행사 품목에서 2개 이상 구매 시 각각 엘포인트, 캐시백으로 최대

500만원을 증정한다.

단품 구매 시에는 최대 3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단품 행사 상품에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870L), 네오 QLED TV, LG전자 오브제 김치냉장고, 위시타워 세탁기(25kg)·건조기(20kg) 등이 있다.

공기정정기와 에어컨 구매 행사로는 최대 1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마련했다. ‘하이메이드’ 인기 상품과 신상품

도 최대 40% 할인해 판매한다.

이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는 클리닝 서비스도 연중 최대 혜택으로 선보인다. 에어컨과 세탁기 클리닝 서비스를 최대 15% 할인한다.

아울러 신규 및 휴면 고객들에게는 웰컴 쇼핑머니 1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4월 28일까지 새롭게 회원 가입한 모두에게 적용, 매장과 온라인 쇼핑물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즉시 사용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자외선 차단제의 진화... 스킨케어·메이크업까지 '한번에'

에스쁘아 워터스플래쉬 선세럼
피부 수분 채워 베이스 완성 도와
프리메라 메이크업 밀착력 높여
남성용도 출시... 선제품군 확장
더후 공진향 진해운 선퀴드 출시
뽀뽀 초점도 제형... 가벼운 사용감
아이소이 팔사·앰플 동시 효과

최근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외선 차단 여부가 제품 선택의 주요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실내까지 도달해 피부 노화 속도를 앞당기는 이른바 '광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화장품 업계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에 다양한 활용성을 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31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에 스킨케어 성분을 보완하거나 메이크업 기능까지 갖춘 자외선 차단제가 최근 잇따라 출시됐다.



'인텐시브 리프팅 앰플 스틱' /아이소이

아모레퍼시픽 자회사 에스쁘아는 수분 선크림 '워터스플래쉬 선세럼'을 새롭게 선보였다. '워터스플래쉬 선세럼'에는 고효능 캡슐 기술이 적용돼, 바를 때마다 자외선 차단 성분 캡슐이 즉각 터져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피부에 수분

감을 전달하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성분과 피부를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펩타이드 성분을 최적의 비율로 함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워터스플래쉬 선세럼'은 피부에 수분을 채워 해당 제품 다음 단계의 베이스 메이크업 완성을 돕는다.

프리메라가 출시한 '디페어링 세라캡슐 UV프로텍터 톤업 프라이밍'도 제형과 성분에서 특징을 갖췄다.

제품 제형이 피부 표면과 유사해 베이스 메이크업 밀착력을 90.7% 높이고 피지 흡착 파우더 성분은 피지를 관리해 메이크업 지속력까지 2배 상승시킨다.

이와 함께 프리메라는 남성용 선크림도 출시해 선제품군 확장에 나섰다. 프리메라 '맨 인 더 핑크 토닝 이펙터 선크림'은 남성 피부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내추럴 스킨 톤링 피그먼트' 색소가 남성 본연의 피부 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바이올렛 색상을 구현한다.

LG생활건강은 선 제품 특유의 끈적임과 묻어남을 개선해 차별적 고객 경험을 선사한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고급 공중 화장품 브랜드 더후는 '공진향 진해운 선퀴드'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뽀뽀 초점도 제형인 동시에 여러 번 덧발라도 잘 묻어나지 않는다. LG생활건강은 바른 듯 안 바른 듯 공기처럼 가벼운 사용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연유래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는 자외선 차단만큼 피부 탄력 관리 또한 광노화 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광노화가 진행되면 색소 침착, 피부 주름, 건조함 등으로 인해 탄력을 잃기 쉽다는 것이 아이소이 측의 설명이다.

아이소이의 '인텐시브 리프팅 앰플 스틱'은 피부 탄력을 위해 팔사와 앰플의 효과를 한번에 누릴 수 있는 제품이다. 단백질 구성 요소이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펩타이드 성분을 4종으로 함유하고 있다.

병풀추출물, 로즈마리추출물, 마트리카꽃추출물, 마카다미아오일 등 자연유래 유효 성분으로 만들어져 민감한

피부도 자극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이소이 관계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요즘 피부 관리의 핵심 요소"라며 "환절기 건조한 날씨, 강해지는 자외선, 야외 활동 증가 등으로부터 피부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공략하다 보니 제품 종류가 한층 다양해지고 있어 봄과 여름을 겨냥한 제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더후 '공진향 진해운 선퀴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경영진, 1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책임 경영·주주가치 제고 적극 실천
김상준 대표이사, 3000주 매입
현금배당 주당 310원 → 580원 확대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올해도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김상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상준 애경산업 대표이사(사진)는 자사주 3000주를 매입했다. 총 매입 금액은 4900여만원이다. 김상준 대표이사는 지난 2023년에도 자사주 6000주를 매입한 바 있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도 잇따라 이어졌다. 정창원 상무와 오윤재 상무는 각각 1000주씩 자사주를 매입했다. 총 매입 금액은 각각 1600여만원이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은 2022년 주당 310원이었던 현금 배당을 580원으로 확대했다.

애경산업은 지난해에도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배당 성향을 30% 수준으로 유지하는 배당 정책을 내세워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펼

치고 있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매출은 2022년 대비 9.6% 증가한 6689억원, 영업이익은 58.7% 증가한 61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매출은 95% 수준, 영업이익은 동년인 2019년을 넘어선 실적이다.

이에 대해 애경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수년간 체질 개선 및 핵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나선 성과라고 설명했다. 애경산업은 향후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주주 친화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동남아 관광객 화장품·향수 매출 30% 증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프로모션 진행

히 하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동남아 관광객 뷰티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과 향수 등 화장품 판매에 열을 올린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2월 동남아 시아 국적 개별 관광객의 뷰티(화장품·향수) 매출이 2019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동남아 개별 관광객의 뷰티 수요는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간으로 보면 2023년 동남아 개별 관광객 연간 뷰티 매출은 2019년 대비 약 20% 신장했다. 동남아 입국객 수가 여전히 201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두드러지는 수치다.

동남아 개별 관광객의 카테고리별 월별 지출 순위에서도 뷰티가 1위로 올라섰다. 높은 제품 단가로 항상 상위권을 지켰던 럭셔리패션 매출을 지난해 8월부터 뷰티가 앞섰다. 동남아 관광객 공략에 화장품·향수가 효자 역할을 톡톡

신세계면세점은 동남아의 뷰티 사랑 배경에는 계속되는 한류 열풍이 있다고 분석했다. K팝, K드라마 등으로 시작된 호감이 한국 미용문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연스럽고 연한 한국식 화장법과 자연 성분을 사용한 '클린뷰티'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과 달리 향수는 외산 비중이 더 크다. 비교적 단가가 높은 니치향수 브랜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호황에 따른 구매력 상승과 젊은 세대 중심으로 개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점차 퍼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오는 4월 30일까지 명동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영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4개국 언어로 행사 홍보물을 제작, 약 10만원 상당의 쇼핑지원금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그룹 '최강야구' 컬래버 팝업스토어

신세계그룹은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 2024 랜더스데이를 기념해 인기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와 콜라보 팝업스토어를 열고 고객들에게 즐거운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오는 4월 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1층에 오픈하는 팝업스토어에서는 SSG 랜더스와 최강 몬스터즈의 다양한 굿즈를 구경할 수 있으며, 랜더스데이 광고에서 추신수 선수가 착용한 굿즈도 만나볼 수 있다. 야구 체험존에서는 야구 배팅과 피칭 등 게임 이벤트도 진행한다.

굿즈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강야구 직관 티켓, 20만원 상당의 굿즈 패키지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신세계그룹의 랜더스데이는 오는 7일까지 진행하며 굿즈 기획전은 SSG닷컴에서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 SSG 랜더스 2024 시즌 유니폼 모자부터 최강야구 인기 어센틱, 티셔츠 등을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아이브로우 재단장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색상 5종 출시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에뛰드'가 아이브로우 펜슬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를 재단장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재단장을 통해 에뛰드는 새로운 색상을 총 5종 출시한다. 특히 이 가운데 '마일드 토프'는 눈썹 솔이 부족하거나 메이크업 기술이 부족한 사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럽고 낮은 채도의 색상이다.

에뛰드에 따르면 '마일드 토프' 색상은 뷰티 유튜버 유트루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유트루가 출시부터 지금까지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를 애용해 온 후기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뛰드가 2021년 출시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는 펜슬형 아이브로우 제품이다. 단단한 3D 육각 모양의 심 형태여서 쉽게 뭉개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5종. /에뛰드

다. 이에 따라 에뛰드는 해당 제품으로 한 올 한 올 정교한 눈썹 결을 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에뛰드는 기존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의 품질과 가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삼성물산, 봄·여름 신상구매 고객 공략

30만원 이상 구매시 10% 할인쿠폰

키츠네·아미·르메르·피어리·자크뤼스 등이 있다. 빈폴·레이디스·액세서리·골프 등 빈폴 브랜드도 함께 한다.

삼성물산이 할인 쿠폰,페이백 등 다양한 쇼핑 혜택을 마련해 봄·여름 신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층을 공략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매장 온라인몰에서 '투게더 워크'를 진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물산 패션부문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주요 브랜드로는 ▲남성복 갤럭시·갤럭시라이프스타일·시프트G·로가디스 ▲여성복 구호·르베이지·구호플러스 ▲글로벌 브랜드 준지·비키카·매종

삼성물산에 따르면 오는 4월 14일까지 각 브랜드 매장에서 3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1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해당 쿠폰은 같은 기간 직전 구매 브랜드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만원이다.

또 삼성물산은 행사 기간 내에 2회 이상 매장에서 구매한 고객에게 1차를 제외한 구매 건 중 가장 큰 결제 금액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금액권을 추가 지급한다. /이청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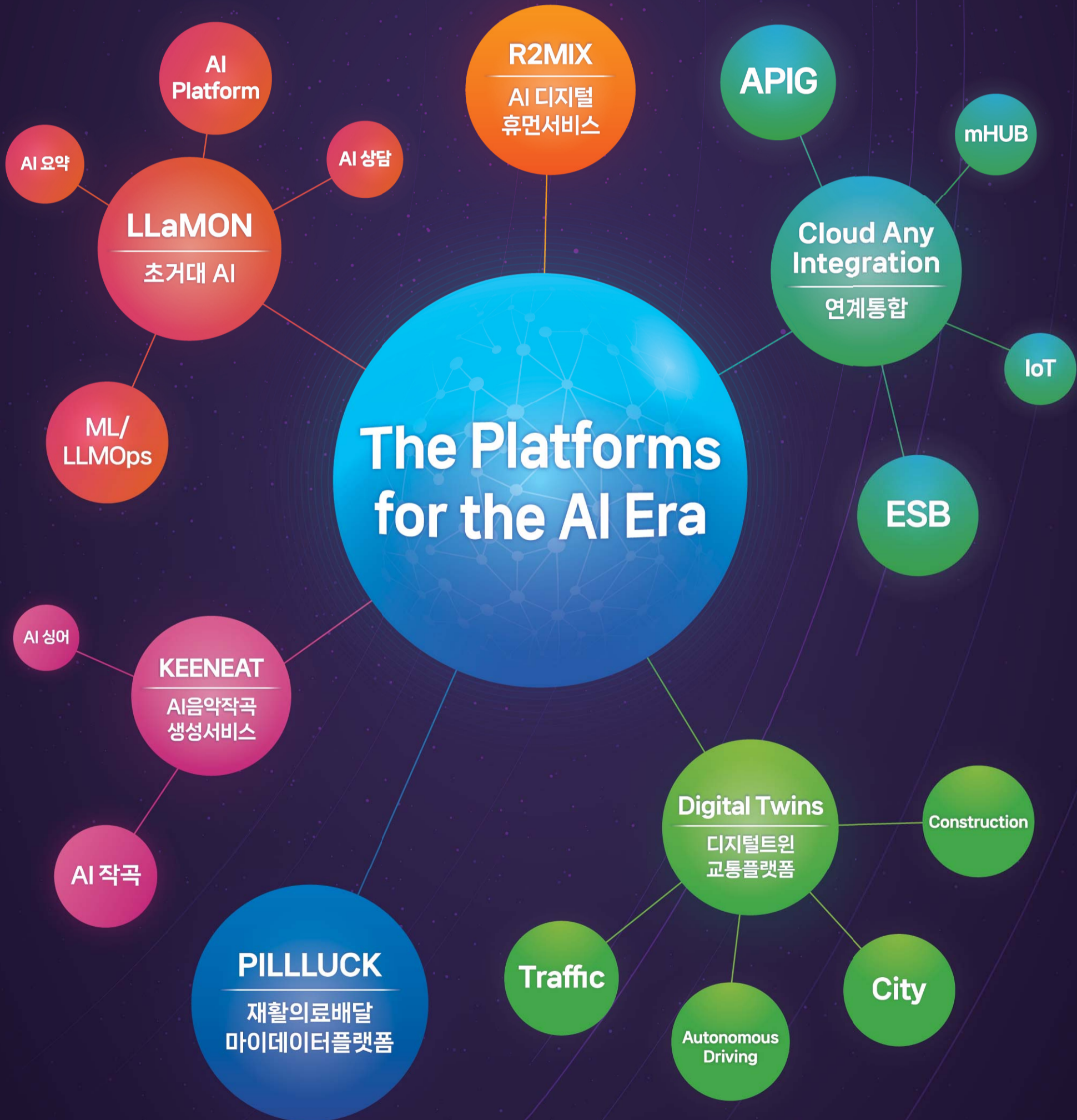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유한킴벌리, 봉화대산 일대에 소나무 4500그루 식재
유한킴벌리가 31일 강원도 동해시 초구동 봉화대산에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24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혼부부 120쌍과 임직원등 300명이 소나무 4500그루를 심었다. 유한킴벌리는 미래 세대에 게 건강한 숲을 물려주겠다는 책임과 약속을 담아 1985년부터 40년 간 신혼부부와 함께 지속해 오고 있다. /유한킴벌리



한화생명, 베트남 '정보올림피아드대회' 후원
한화생명은 지난 30일 베트남 미래 인재 발굴과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다낭 국립대 산하 한-베 ICT대학교에서 '정보올림피아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베트남 정보올림피아드대회는 정보학 분야의 우수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개최하는 행사로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화생명이 후원하게 됐다. /한화생명



BNK경남은행, '태화강 심리대발 걷기행사' 실시
BNK경남은행은 UBC울산방송과 공동으로 '2024 태화강 심리대발 시민걷기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2024 태화강 심리대발 시민걷기행사'에는 예경탁 경남은행장과 김두겸 울산광역시 시장, 김기현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그리고 사전 및 현장 접수한 지역민 등 3000여명이 참가했다. /BNK경남은행



중앙대, OST 공모전 결선... 이주혁 학생 대상
중앙대학교는 26일 SK브로드밴드·셀바이뮤직과 협력해 '중앙대학교 OST 공모전' 최종 결선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실용음악 전공 이주혁 학생의 곡 '개화'가 차지했다. (왼쪽부터) 김태성 중앙대 인재개발센터장과 대상을 수상한 이주혁 학생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대

환경산업기술원
“2024 환경창업대전” 도전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1일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을 대상으로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한 대회이며, 공모기간은 5월3일까지다. 최종 25개 수상팀을 선발해 총 1억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치버스’ 타고 서울 도심 누비세요”

서울시 'FUN 디자인' 적용 첫 운행 노선에 남산일대 선정

서울시의 상징 캐릭터 '해치'로 꾸며진 '해치버스'가 앞으로 서울 도심을 누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30일부터 남산~청와대 등 주요 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해치버스' 운행이 개시됐다.

'해치버스'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 전략인 'FUN 디자인'을 대중교통에 적용한 사례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을 창의적이면서도 활력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15년만에 새롭게 리뉴얼한 '해치' 캐릭터를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으면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치버스의 첫 운행 노선으로는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 관광명소인 남산일대가 선정됐다. 운행 구간은 남산공원과 주요 지하철 역사 등을 경유하는 남산순환버스 01A번(남산-청와대순환)과 01B번(남산공원순환) 2개 노선이다.

01A번은 남산예장버스환승주차장을 기점으로 ▲충무로역 ▲동대



'해치 버스' 디자인은 민트·핑크 색상 2종으로, 봄 계절에 어울리는 시안으로 구성됐다. 해치와 소울 프렌즈의 발랄한 모습을 표현하면서도,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천장, 바닥, 의자 등 내부 디자인까지 상상력이 가득한 공간으로 연출됐다. /서울시

입구역 ▲남산서울타워 ▲남대문시장역 ▲충무로역 ▲동대입구역 ▲국립극장 ▲남산서울타워 ▲남산도서관 ▲남산예장버스환승주차장(종점)까지 운행된다.

01B번도 남산예장버스환승주차장을 기점으로 출발하며 ▲충무로역 ▲동대입구역 ▲국립극장 ▲남산서울타워 ▲남산도서관 ▲남산예장버스환승주차장(종점)까지 운행된다.

'해치버스'는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 혁신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이

용도 가능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인 버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해치' 캐릭터를 입고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새로운 대중교통 활성화의 계기가 되면서도, 전 연령에게 사랑받으며 매력특별시 서울 시정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해치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올해 7000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혜택

교육부-장학재단 2개 유형 운영 26일까지 접수... 6월 최종 선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7000명의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조기에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꿈 장학금과 다문화 장학금 등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다문화 장학금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유형으로, 저소득층이

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꿈 장학금 1800명, 다문화 장학금 200명 등 총 2000명을 신규로 선발하며 기존에 선발된 5000명을 합해 총 7000명이 대상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 장려금이 카드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된다. 학생들은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1대 1 상담(멘토링), 마음건강진단, 진로역량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기간은 1일부터 26일까지다. 서류심사, 심층평가 및 장학생 선발·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최종 선발

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학부모는 신청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의 안내 사항을 참고해 생활기록부, 학업계획서 등 장학금 신청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사다리 장학금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 발씩 성장해 나가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한국벤처투자
신입·인턴 공개채용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올해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등 14명을 공개 채용한다.

31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채용 분야는 ▲일반직 심사역(신입) 9명(모태펀드 운용, 해외 VC 글로벌 펀드 운용, 투자업체 심사 및 관리 등) ▲일반직 심사역(전산) 1명 ▲공무직(보안) 1명 ▲전문계약직(경력) 1명(지역펀드 운용)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2명이다.

응시원서는 한국벤처투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한일홀딩스, 정종호 이사회 의장 추대

한일그룹 지주사인 한일홀딩스가 1961년 창립 이후 첫 사외이사 의장을 선임했다.

31일 한일그룹에 따르면 한일홀딩스는 지난 28일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 의장으로 추대했다.

정종호 사외이사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 인류학 석사, 미에일대 인류학 박사(중국 전공)를 거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지역학)로 재직 중이다. 중국 등 국제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정 사외이사는 글



로벌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 기술,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등 다방면에서 한일홀딩스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기는 2년이다.

한일시멘트는 1979년 복수대표이사제 채택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한일홀딩스로 출범하며 더욱 선진화된 지배구조도 구축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에어부산
마카오 2인 특가 프로모션

에어부산이 부산-마카오 노선 2인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 항공권은 2인 편도 총액우임(유류할증료 및 공항 시설 이용료 포함) 기준 19만 9000원에 판매된다. 프로모션은 4월 1일 오전 11시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구매한 항공권으로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탑승 가능하다. 프로모션 항공권은 에어부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항공권 검색 시 '2인'으로 설정해야 조회 및 구매 가능하다. 프로모션 항공권 구매 고객 대상으로 부가 서비스 번들 3만원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현재 에어부산은 부산-마카오 노선을 주 3회(화·금·일) 운항하고 있으며, 부산김해국제공항에서 밤 10시에 출발해 마카오 현지 공항에 다음날 오전 0시 55분에 도착한다. 귀국 항공편은 현지 공항에서 오전 1시 55분에 출발해 부산에 아침 6시 30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풀무원식품
‘풀무원 주부모니터’ 모집

풀무원식품은 풀무원의 마케팅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품 관련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해 나갈 ‘풀무원 61기 주부모니터’를 모집한다.

풀무원 61기 주부모니터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월 1~2회(매월 2, 4주 목요일) 진행하는 오프라인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활동하게 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만 25~49세의 전업주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61기 주부모니터에게는 월 최대 10만원(회당 5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승진 △김동희 근로기준정책팀장 △이웅빈 노사협력팀장

◆우리카드 ◇임원 승진 ▲기업영업본부 전무 박승재 ▲소비자보호본부 전무 김혜숙 ▲준법감시인 전무 이상철 ◇이동 ▲금융서비스그룹 겸 금융사업본부 전무 유태현 ▲신용관리본부 전무 김준 ◇부사장 이동 ▲가맹점사업부부장 윤준구 ▲기업영업기획부부장 김동문

부음

▲이종길(전 동부건설 부회장)씨 별세 = 31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전라북도 임실 운암면 선거리 선영. 063-250-1444

▲김두레 씨 별세, 차현태(사업)·차현국(변호사)·차현준(충북 음성중앙병원장)·차현희(서울 원효초등 교사) 씨 모친상, 임채익(전 KOTRA 실장) 씨 장모상 = 30일 오후, 광주 VIP장례타운 201호, 발인 2일 오전 8시30분. 062-521-4444

골프장 인수 시 기존 회원권의 효력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을 양수한 자는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의무'는 물론 '중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그대로 승계합니다(체육시설업제27조제1항).

그렇다면, 골프장이 신탁법상 담보신탁이 됐다가 공매처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골프장 공매 매수인 또한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공법상 권리·의무는 물론, '중전 골프장과 회원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 역시 그대로 승계합니다(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기존업자의 공법상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고, 기존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그런데 골프장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럴까요? 대법원은 "그 경우에도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즉 골프장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수인이 승계사유 발생 후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수의 회원권의 사법상 권리·의무의 승계효력이 좌우된다면,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인수인이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골프장이 인수된 경우에도 최초 골프장의 회원들은 최종 인수인에게 골프장 회원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중전 회원들은 골

프장의 최종 인수인에게 회원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나25906 판결).

위 사건에서 중간 인수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골프장을 인수받은 최종 인수인은 중전 회원권자들의 골프장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해석상 중전 골프장의 소유자가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만 인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중간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최종 인수인을 상대로 골프장회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종 인수인은 골프장을 인수해 기존 회원권 약정관계를 승계적으로 승계했고, 이는 중간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는지와는 무관하다고 본 것입니다. 골프장 인수나 인수인의 체육시설업 등록과 무관하게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른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대파를 위해 투표해야



기지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파가 '윈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싼 가격으로 '대파 코인'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던 대파는 총선을 앞둔 지금도 먹거리 물가 상승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폭 할인된 대파 한 단의 가격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정치권의 논쟁 거리가 되고 있지만, 대파값의 기복은 갈수록 심해지는 자재값과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이상기후와 관련이 있다.

겨울대파의 상당수는 따뜻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재배되고 있다. 올해 겨울대파는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평년보다 한달 빠르게 출하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한다. 한창 겨울 대파가 자라고 있을 지난해 12월 신안에 폭설과 우박이 내려 대파 피해가 컸고, 이례적으로 한파로 땅이 굳어 수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대파값이 올라도 팔 물량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는 고공행진을 보이는 대파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신선대파를 4개월째 무관세로 수입해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만, 국산 대파값을 잡기 위해 수입된 외국산 대파가 오히려 대파값의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어 산지의 농민들은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파값 상승이라는 현상에서 정치권이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이상기후에 국산 농산물의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세심한 수급 공약을 내놓는 모습이 필요하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더 많은

화석연료를 써 가며 기후위기를 앞당기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대책을 내놓는 정당의 공약을 보고 유권자는 투표 결심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소 리워드를 확대하여 동료 시민과 함께 생활 속 탄소감축을 실천하고 무공해 차량 보급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국회에 기후특위를 신설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체계적인 탈핵,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100% 달성 등을 내세웠다.

대파값은 현대인의 편안한 삶 때문에 오른 것일지도 모른다. 대파값의 변덕을 멈추려면 오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대파 농가와 대파를 위한 투표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pth2785@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1일 (음 2월 2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바쁘더라도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48년생 가족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날이다. 60년생 새로운 기회의 날이니 놓치지 말고 계획을 세우자. 72년생 꽃보다 아름다우니 자신감을 느끼자. 84년생 신혼인데 배우자와 닭 소 보듯 한다.



37년생 비상금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49년생 뒤늦게 투자의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 자제. 61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 73년생 꿈을 얻으려면 땀을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85년생 날아다니는 까막까치도 제 법은 있다.



38년생 좋은 일진을 실감. 50년생 마케팅에는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 시간을 중시. 62년생 이사 날짜에 숙설이 난무하지만 귀담아들음은 듣도록. 74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든 시작. 86년생 오피를 만남에서 행운이 시작.



39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힘써라. 51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63년생 각고의 노력으로 계약 성사. 75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날이다. 87년생 남의 밥에 든 콩이 커 보이는 현실.



40년생 매매는 조금함이 화를 부르니 느긋하게 행동. 52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나 매번 불청객이다. 64년생 아침부터 탄탄대로이다. 76년생 뜻은 원래하나 현실은 만만치 않으니 노력. 88년생 꽃샘에 설눈이 얼어 죽으니 투자주의.



41년생 이별한 가족의 불행을 방관하지 말자. 53년생 치고 올라오니 망둥이가 뛰니 꿀뚜기도 된다. 65년생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천년을 가는 사랑도 있다. 77년생 근면 성실하게 움직이자. 89년생 주고 나면 큰 꼴어진 뒤뚱박 신세 될 터.



42년생 사돈간의 분쟁의 실마리가 오해에서 시작. 54년생 지루해도 참으니 계약 성사의 행운이 오게 된다. 66년생 오늘의 영광은 노력해온 결과물이다. 7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마음만 상한다. 90년생 일하러 나간 사람 뚫은 있다.



43년생 자식이 돈으로 주변에서 서운하게 한다. 55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오늘은 거칠 것이 없다. 67년생 선무당이 사람 잡으니 시시비비주의. 79년생 다툼이 생겨도 한발 물러서서. 91년생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했거늘.



44년생 맹물에 조약돌을 삶더라도 제맛에 산다. 56년생 병도 약도 내 하기 나름이다. 68년생 실력승진으로 일약 스타 반열에 오른다. 80년생 영업에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다. 92년생 도화의 아름다운 운이니 줄 것을 주고 깔끔하게 마무리.



45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57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족에게 있다. 69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81년생 서당 개 삼년에 풍월한다. 93년생 종교가 있다면 조상님 제향을 행하는 것은 기본.



46년생 뱀띠와의 거래가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58년생 재물이 생기지만 나누어야 다음을 논하게 된다. 70년생 평소의 노력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82년생 둘러치나 메치나 마찬가지. 94년생 부부간에 이별의 적조(積阻)보다는 화합해야.



47년생 연인이 있다면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악화. 59년생 마른 눈에 물 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된다. 71년생 마음이 울적하다. 83년생 핑크색옷을 입고 미팅에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95년생 달밤에 잤다 쓰고 나오니 모양새가 구겨진다.



김상회의四季 생활 속의 풍수지리

대한민국에 풍수에 관한 영화가 인기몰이 중이다. 풍수지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때는 가끔 틈이 날 때마다 풍수지리 답사를 다니곤 했다. 바깥바람을 쐬기도 하고 산과 들을 다니다 보니 기분 전환도 되는 즐거운 기억이다. 풍수에 관심을 두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은 벌써 30년도 훌쩍 지났다. 필자의 스승이신 단원 선생님은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던 것을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라고 말씀했다. 또 풍수지리와 관련한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동호인들도 함께 떠난 적도 있었다. 의외로 여성들의 참여가 많아졌다. 풍수지리가 고리타분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 중요한 관심사란 것을 실감한다. 최근의 그 인기 영화에서도 음택풍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역사적 현실에 빚대어 조명하고 있다. 묘자리 풍수지리는 우리 조상들의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가 절연된 상태가 아닌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내놓으라 하는 가문일수록 조상들의 묘자리를 잘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후손들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였다.

선거철이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도 조상 묘자리에 관한 이야기이다. 대권 후보들이 정치 야망을 갖게 되면 조상님 산소를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하기도 한다. 천하의 명당이라 여겨지는 만조백관이 읍을 하는 제왕지를 찾지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묘소를 쓸만한 땅도 없는 형편이니 음택풍수로 운명을 바꿔보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일상생활 속에서 개운을 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이다. 생활 속의 풍수지리 양택풍수에서 바람 잘 통하고 수맥이 흐르지 않는 터에다가 별만 잘 들면 일단 절반은 성공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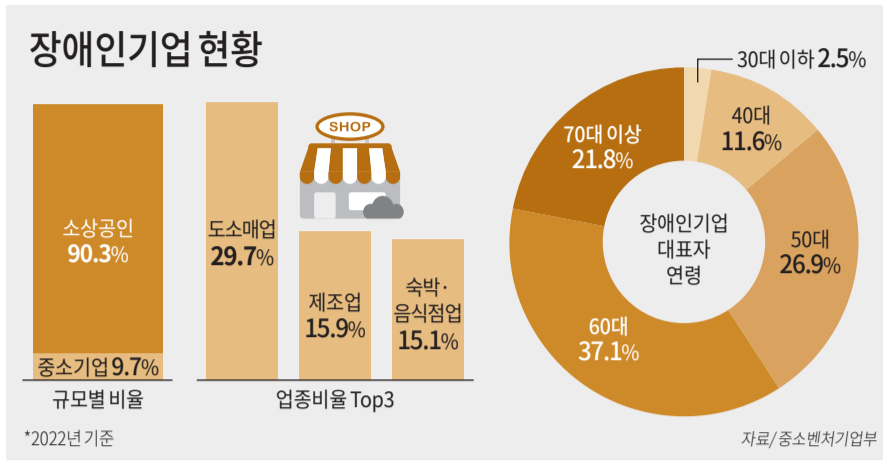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Advertisement for 'Sudoku 365' featuring a 3x3 grid puzzle and promotional text for the 'Argo9' brand.

Advertisement for 'Metro' magazine,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eoul office and a list of staff members.

늘어가는 장애인기업... 대표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

중기부, 2022 장애인기업 조사 총 16만4660곳... 2년 전비 43% ↑ 종사자 수는 54만여명 36% 늘어 임직원 약 3명 중 1명 장애인 구성



장애인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자 10명 중 6명 가량이 60대 이상이고, 대표자 평균 연령도 60세를 훌쩍 넘으면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기업 종사자 10명 중 3명은 장애인으로 파악됐다. 또 장애인기업 10곳 중 9곳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소상공인이었다. 1곳당 평균 종사자수는 3.3명이었다. 장애인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꼽혔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중기업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장애인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통계는 기존엔 2년마다 작성해 공표했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나

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숫자는 16만 4660개사로 2년 전인 2020년의 11만 5347개사보다 42.8% 늘었다. 2018년 조사 당시엔 9만 5589개사로 10만곳을 채 넘지 못했다. 장애인기업에 다니는 종사자수는 총 54만 4840명으로, 2년 전보다 35.5% 늘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전체의 32.2% 수준인 17만 5581명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기업은 임직원 약 3명 중 1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됐다. 다만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3.6명(2020년)에서 3.3명(2022년)으로 2년 새 줄었다.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1.3세로 집계됐다. 6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도 21.8%에 달했다. 전체의 58.9%가 대표자 연령이 60세를 넘은 것이다. 반면 30대 이하는 2.5%에 그쳤고, 40대도 11.6%였다. 대표자의 장애유형은 66.8%가 지체

장애였다. 81.3%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4~6급)으로 조사됐다. 전체 장애인기업 중 90.3%(14만 8723개사)는 소상공인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9.7%) ▲제조업(15.9%) ▲숙박 및 음식점업(15.1%) 순으로 많았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경영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해졌다. 장애인기업의 매출을 더한 총 매출액은 75조 1368억원으로 2년 전 조사 당시보다 60.1% 늘었다. 영업이익은 7조 6212억원으로 80% 증가했다. 다만 이는 표본으로 선정한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체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22조 2545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했다. 이외에 도매 및 소매업(21조 원), 건설업(14조 원) 순이었다. 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4억 5631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4628만원으로 집계됐다.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51.9%) ▲판로확보·마케팅(39.8%) ▲인력확보·관리(28.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자금사정은 2.14점으로 여전히 '나쁨'에 머물렀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분야로는 운전자금이 77.3%로 절대적이었고, 인건비(12.8%), 시설자금(3.4%) 등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도 자금 조달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74.7%)를 꼽았다. '세제지원'도 49%로 적지 않았다. 이외에 '판로지원'(24.4%), '인력지원 제도'(18.5%)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기업육성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기업실태 조사가 매년 실시됨에 따라 변화되는 경영환경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원자재 가격정보 무료 제공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지정 약정체결 관련 법률자문 등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에 지정됐다. 3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연동지원 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변동률 자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하는 원자재 가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중소기업 자사 제품의 원가분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동 약정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종별 애로사항을 파악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 등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탁기업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건의할 수 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코웨이, 서울맹학교서 특강·공연 펼쳐

'물빛소리 합창단' 사계 중 봄 등 공연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는 재학생 및 교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들의 특강과 합창단 공연으로 꾸며졌다. 특별 멘토로 나선 졸업생 2명은 합창단에 대한 소개와 진로 설계 경험담 등을 공유하며 후배들이 직업 선택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했다.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특강 전후로 공연을 선보이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계 중 봄' 등 계절감을 살린 곡을 비롯해 '미래로 가는 계단', '음악은 항상 내 곁에' 등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곡을 노래하며 꿈을 찾아 성장해나가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보냈다. /김승호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8 | 해짐 / 18:55

4월 1일 (월) 음력 : 2월 23일

수도권 날씨 5~1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에이스 하드웨어 클락앤켄싱턴 페인트 할인

유진그룹 계열 유진홈센터의 집수리 전문 브랜드 에이스 하드웨어가 '봄맞이 집단장, 클락앤켄싱턴 페인트 역대급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31일 유진홈센터에 따르면 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봄을 맞아 스스로 집을 꾸미고 고치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가정용 프리미엄 미국 페인트인 클락앤켄싱턴을 전품목 50% 할인 판매한다. /김승호 기자

경동나비엔 '환기청정기' TV광고 론칭

광고모델로 배우 마동석 출연 필터를 통해 깨끗한 새 공기를 수시로 공급할 수 있다는 차별점도 전달한다. 경동나비엔 광고모델 마동석 씨는 '나비엔 숙면매트'와 '나비엔 콘텐싱 ON AI'에 이어 '환기청정기' TV광고에서도 한 번 출연을 펼친다. '마블리(마동석+러블리)'라는 별명처럼 다양한 매력을 뽐냈던 모델 마동석 씨는 이번 광고에서 나쁜 공기와 깨끗한 공기로 1인 2역을 맡았으며, 환기청정기를 통해 실내 공기가 정화되는 과정을 특유의 표정 연기와 맨손 액션으로 재치있게 표현했다. /김승호 기자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7월 나토 정상회의에 기시다 초청 조율 중” 日 언론 /사진 뉴시스
▲이스라엘, 네타냐후 사퇴·인질 석방 촉구 시위...“16명 체포”

▲에르도안 ‘정치적 시험대’... 이스탄불·앙카라 탈환 주목
▲이군 정전협상에도 가자시티 폭격, 12명 살해 수십명 부상



▲세계은행, 에티오피아 가뭄 상습지역 300만명에 회복 자금 지원 /사진 뉴시스
▲트럼프, ‘바이든 납치’ 연상 이미지 담긴 동영상 올려



음료·디저트에
벚꽃 활짝
“봄 한정판 맛보세요”
L1



Life

자외선 차단제
메이크업까지
한번에
L2



“한국 인구소멸 위기…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주 이끌어야”



새벽을 여는 사람들

한국직업능력교육협회

오승균 이사장

“인구수가 곧 국력(國力)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도록 이민·유학생 정책을 보완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승균 한국직업능력교육협회 이사장(미래융합연구원 대표이사)은 ‘인구 정책이 국가 모든 정책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이사장은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을 기록하는 대한민국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보다 ‘인구 유입 정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출산을 장려해야 하지만, 당장 부족한 학령인구와 산업계 인력을 보충하려면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해야 대한민국 국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이사장은 “인구소멸과 생산인력 부족에 따라 지역 산업 현장은 위기를 맞았고, 대학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신입생을 뽑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이라며 “산업과 교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정부와 대학이 그리고 민간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자유학기제·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정책 개발과 윤석열 정부 교육공약 개발팀에 참여하며 인·교육 및 노동시장의 경험을 토대로 ‘인구 유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도적·법률적 범위 안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인구 소멸 극복 정책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국내 대학은 ‘유학생’ 원하고 외국 학생은 ‘한국행’ 원한다”

오승균 이사장은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생존 위기’와 ‘지역 산업 소멸 문제’를 해결할 핵심 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유학생 유입을 국가적 과제로 보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약 17만여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30만명까지 유치해 유학생 수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교육부 목표다.

한국직업능력교육협회는 오승균 이사장이 이런 뜻을 모아 최근 설립한 단체다. 저출산 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문제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 계획을 내놓자, 전현직 대학 총장과 교수들, 고교 교



오승균 한국직업능력교육협회 이사장(미래융합연구원 원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용산구 미래융합연구원에서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인구소멸, 생산인력 부족에 지역산업 위기
인구 유입 대안 제시 등 정책 체계화 앞장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존·지역소멸 해결책
이민자 받아들이는 인식개선·제도 필요해
국제교류전문가 자격증 신설, 인력양성 계획

장·교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오 이사장은 “해외 유학생 유치에 힘써 오던 대학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지역 고등학교도 학생 부족으로 유학생 유치를 속속 시작하는 추세”라며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글로벌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개발하고 글로벌 연수 및 체험, 유학생 및 이민자 교육훈련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설립은 그간 활동해 온 미래융합연구원 활동이 발단이 됐다. 그는 미래융합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내 특성화고교나 대학 학과 재구조화 및 컨설팅을 주업무로 해 왔다.

오 이사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해가 갈수록 대학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고, 대학의 주요 고민거리 또한 기존에는 ‘경쟁력 학과’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학생 유치’로 집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근 몇 년 대학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모집하고 싶다’일 정도”라고 덧붙였다.

반면 해외 현장에서는 국내 대학에 문을 두드리고 싶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오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중국 난창에서 열린 메

타버스 관련 학회에 ‘한국 가상현실(VR) 현황’ 발표자로 초대받아 방문했는데 중국 현지 고교·대학 관계자들은 되레 ‘우리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며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고, 중국 현지에서는 우리나라로 유학하고 싶은 니즈(needs)가 충분하다는 걸 느꼈다”고 설명했다.

◆ “뿌리산업” 살릴 전문대학 유학생, 문호 확대해야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 시 요구되는 언어 장벽이 아직 높다는 게 한계라고 오 이사장은 말했다. 현재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3급 이상(토픽 530 이상에 상응)이거나 2급을 탄 후 한국어 집중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졸업 시에는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은 TOPIK 4급 이상 취득을 해야 졸업할 수 있다.

오 이사장은 “학문연구 중심의 일반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은 실무위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있고, 전문대학 학생들은 진로 또한 뿌리산업, 조선업 등으로 실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전문대학 유학생이나 산업인력으로 입국하

는 이민자는 입국 조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인구가 우리 산업 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이민자나 유학생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승균 이사장은 “마을 이장이 외국인인 곳도 있고, 안산 한 초등학교에는 무려 22개국 학생이 재학 중”이라며 “경상북도 한 고등학교에는 올해 전국 최초로 무려 48명의 유학생이 입학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선진국에서 온 유학생이나 이민자와는 달리 개발도상국 이웃에게 종종 거리감을 두는 시선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을 ‘다문화’나 ‘유학생’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졸업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국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인식과 제도를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 유학생 유치·교육 ‘원스톱 서비스’…국제교류전문가 양성 계획

오 이사장은 “정부 계획대로 유학생 규모를 2027년까지 3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 이들을 유치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이런 변화 과정에서 국가는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니 협회가 뒷받침하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유학생 유치와 더불어 유학생 대상 교육 콘텐츠도 개발 중이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가 처음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반을 다루는 교양 강좌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개설했는데, 이를 개발한 개발자가 우리 협회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게 됐다”라며 “유학생이나 이민자가 한국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에서 수업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국제교류전문가 민간 자격증도 신설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오 이사장은 “유학생 비자 등 국가 간 학생 교류 시 각종 제도적 문제에 능통하고, 문화적, 언어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올해 자격증 개발 과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 ‘1회’ 취득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미국이 세계대전 이후 최고 경제 활황기를 맞은 배경에 이민자 없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라며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한 해답도 바로 여기 있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인력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산업 현장에서 정주하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거문고와 시와 즉흥연주...서울문화재단 ‘퀴드초이스’
▲ 서울시향 연주로 듣는 레드벨벳 ‘사이코’...“오케스트라 음악 정수” /사진 뉴시스

▲ 용산역사박물관 소장 조선후기 고지도, 유형문화재 지정
▲ ‘챔피언 무산’ 박지수 “결과 아쉽지만 후회는 없어...단단해져 돌아오겠다”



▲ 손흥민, 복귀 기념 짜릿한 역전 결승골
▲ 이정후, MLB 개막 3경기 연속 타점 /사진 뉴시스



세상을 바꾸는 금융

1학년이 된 딸에게

빨리 커라 빨리 커라 시간을 재촉하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널 보니...
너, 왜 이렇게 빨리 컸니?

바쁜 아침이란 핑계로 재촉하듯 널 등교시키고
해 질 무렵에야 널 만나 미안함 가득한 저녁,
"엄마, 오늘 학교 진짜 재밌었어. 엄마도 재밌었어?"

늘봄학교 끝나고 해맑게 달려와 안기는 너의 미소는
미안해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려서
엄마 마음이 몽클해지곤 해.

늘 부족한 엄마에게 과분한 행복이 되어주는 너.
따스한 봄날 같은 너의 존재에 감사하며
어제보다, 더 많이 사랑할게

너라서 참 고맙다
늘 봄 같은 우리 딸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함께 만드는 '돌봄 공백 없는 세상'

KB금융그룹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총 1,250억 원을 지원하여 2,256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하였고 2027년까지 25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